

2002년 여름농활 자료집 (*농정세는 녹두꽃 참조)

→ 제목에 마우스를 대고(손가락이 나타나죠?) 클릭하면 내용 본문으로 바로 갑니다.

I. 전여농에 대해서

- 1 전여농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2 올해 사업 방향
- 3 2002년 2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장날 선전전!
- 4 전여농 여름 농활 계획
- 5 전북 여성농민한마당 알아보기

II. 농활 진짜로 잘 해봅시다.

- 1 준비를 잘 합시다.
 - 1 이제 마을로 들어가자!
 1. 근로활동과 일상적 활동
 - (1) 여성농민들과 대화하기 (2) 마을방송 (3) 호별방문
 2. 분반활동
 - (1) 여성농민분반활동이 뭐예요? (2) 분반활동,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 (3) 분반활동 시 여성농민 조직화 및 유의할 지점 (4) 분반활동 이렇게 해봅시다.
 3. 마을잔치
 4. 통일 한마당
 - (1) 통일한마당에 여성농민 조직화하기 (2) 여성농민대동의 장 만들기
 - (3) 그 외 통일한마당에서 여성농민이 주체가 되기 위한 방도들
 5. 비오는 날에는
 - (1) 여성농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2) 농활대원들과 교양하고 토론하기
1. 마치고 나면 성과를 잘 챙기자!
 1. 여성농민, 여성농민회와의 후속작업
 2. 학생들에 대한 후속작업
 3. 평가를 이렇게 해봅시다.
 4. 농활주체들과 함께 이렇게!

III. 성폭력 없는 농활 만들기!

- 1 농활 성폭력이란?
- 2 농활 성폭력의 사례
- 3 농활 성폭력의 특징
- 4 어떠한 관점을 가질 것인가?
- 5 농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
- 6 농활 성폭력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자!
- 7 맺으며

IV. 도움 자료

- 1 위대한 여성 땅의 어머니 여성농민 - 교양자료
- 2 부산대학교 농활 반성폭력 자치규약
- 3 농활 성폭력 지수 테스트
- 4 다함께 부를 수 있는 재밌는 노래
- 5 여성농민 글 마당

농활 반성폭력 자치규약 11 권을 - (여)

I.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 대해서

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창립목적

하늘같은 먹거리들
생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고
집안대소사를 살피는
팔방미인 어머니 여성농민.

쓰러져 가는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농업노동을 하고 있는
억척꾼 여성농민

여성농민이
역사와 생산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농촌과 농업을 힘찬 생명력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건설되었습니다.

2. 주요 활동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
-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 방안 마련과 대정부 촉구
- 발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제도 마련
- 여성농민 농업노동의 기계화, 고도화 추진

여성농민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활동
- 농업 등 농관련 단체의 여성농민의 조합원 자격확대 및 참여 방안 마련
- 지방자세단체에 여성농민 담당 부서 설치 촉구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 활동
- 여성농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 농촌지역에 국공립 탁아소 설치 촉구
-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
- 농산물 가격 보장 활동
- WTO개방 체제에 맞선 우리 농업 지키기 활동

3. 주요연혁

- 1989. 12. 18 전국여성농민위원회 건설
- 1992. 1. 2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으로 개칭
- 1992 전량수매와 학교급식 완전 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농민대회
- 1993 우리 쌀 지키기 전국여성농민대회
- 1994 농정개혁과 여성농민 정책 토론회
- 1995 복수조합원계의 올바른 시행방안 공청회
- 1995 쌀 지급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쌀 전달식
- 1996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예산 확대 방안 심포지움
- 1996 쌀 지급과 여성농민 복지 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농민대회
- 1997 '97 대선 여성농민 정책 과제 토론회
- 1997 정부기관의 여성농민 직업교육 현황조사 보고 세미나
- 1998 여성농민의 농업전문인력화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 1998 가족농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 1998 농가부채 해결과 직접지불제 확대를 위한 전국여성농민대회
- 1999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를 위한 세미나
- 2000 창립 10주년 기념식

2 올해 사업 방향

1. 사업 방향

- 1) 신자유주의·WTO 반대투쟁과 농가소득보장·농산물가격보장 투쟁을 힘있게 전개한다.
- 2) 지주적 여성농민운동을 명확히 세워나가며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대한 조직적 지원과 조직의 확대 강화에 주력한다.
- 3) 6.15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교류사업 및 통일사업의 내용을 여성농민 생활에 근거한 실천을 벌여낸다.

2. 핵심사업 과제

- 1) WTO 수입개방반대, 한미/한일투자협정·한칠레자유무역협정 지지 투쟁전개
- 2) 여성농민의 소득보장 투쟁
- 3) 조직의 강화발전을 위한 지역지원사업 전개
- 4) 남북농민교류사업 및 통일사업전개

3. 분야별 사업계획

- 1) 투쟁사업
 - 목표 : 여성농민의 실정에 근거하여 주체적 투쟁을 전개합니다.
 - WTO 수입개방반대, 한미/한일투자협정·한칠레자유무역협정 지지 투쟁
 - 통일을 대비한 식량지급·농가 소득보장 투쟁
 - 협동조합 개혁투쟁

- 농가부채 해결투쟁
- 동시다발 선전전 및 실천투쟁의 날 전개
- 메시지 당면투쟁 전개

2) 조직사업

- 목표 :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중앙과 지역의 결합력을 높인다.
- 준비된 간담회 실시
- 도단위 회의 결합
- 조직 토론회
- 활동가 전진대회
- 지역조직사업지원 : 지역현황에 따른 다양한 방도를 모색

3) 교육사업

- 목표 : 활동가들의 활동력을 높여내고 교육을 통해 조직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 초기활동과 교육
- 회장단 교육
- 지역교육사업지원 (권역별 교육, 주제별 교육 등)

4) 정책사업

- 목표 : 여성농민의 정책생산과 정책대안을 내온다.
- 여성농민 정책 토론회
- 여성농민지 발간
- 정세자료 발간
- 사안별 정책생산과 정책대안 마련
- 성명서
- 기타

5) 통일사업

- 목표 : 여성농민의 생활에 근거한 조국통일 사업을 전개한다.
- 조국통일위원회 구성
- 통일운동의 대중화(교육, 교양사업)
- 남북농민교류사업
- 지역여성농민통일한마당
- 8.15 농민통일한마당, 여성통일한마당

6) 연대사업

- 농학연대 사업
- 농민단체 연대사업
- 민민단체 연대사업
- 여성단체 연대사업

3 2002년 2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장날 선전전!

1. “쌀 수입 개방 반대 전여농 1차 동시다발 선전전” 진행 보고

- 전여농 자료에서 발췌

(1) 4월 선전전 보고

농민대회를 따라가서 대열에 앉아 구호 외치고 행진하면서 노래부르던 것이 주었던 이전의 투쟁수준을 뛰어 넘어 이제 여성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작지만 집회신고도 내보고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우리가 한 번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이번 선전전은 구례, 의성, 진주, 고성 등 네 지역에서 직접 유인물과 피켓을 들고 서명도 받으면서 지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안, 임실, 고창, 성주, 상주, 안동, 논산 지역은 선전전 기간에 맞춰 중심 면단위에 플라깅 걸기를 진행하였고, 특히 부안에서는 플라깅을 거는 것이 장기적이고 더 효과적이었다는 판단 하에 전체 13개 중 12개 읍면(1개는 섬지역) 입구에 임원들이 직접 쓴 플라깅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읍에서는 촉박한 준비기간과 비싼 농사일정으로 유선방송에 자막 선전과, 청와대, 농림부, 경제부를 포함하여 정읍시청, 각 지역단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실천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이라 많은 시군여농에서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전전을 계기로 여성농민의 실정에 근거한 우리의 실천활동 방식이 더 많이 개발되고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다발 선전전은 앞으로 6월, 8월, 10월, 12월에 주욱 진행됩니다.

(2) 4월 선전전 실물적 보고

1) 전북

부안 : 4월 20일 프랑 걸기 진행, 임원들이 직접 프랑 제작하여 13개 읍면 중 12개 읍면에 직접 걸었음(1개면은 섬지역)

김제 : 4월 17일 - 선전전

임실 : 중심 면 단위 프랑 걸기

정읍 : 케이블 방송자막 넣기, 인터넷 홈페이지 글 올리기

고창 : 프랑 걸기

2) 경북

의성 : 4월 22일 - 선전전, 프랑 걸기

성주 : 프랑 걸기

상주 : 프랑 걸기

안동 : 프랑 걸기

3) 경남

진주 : 4월 18일 : 지수면/금곡면 : 선전전

금곡면 : 프랑 걸기

고성 : 5월 1일 : 선전전

4) 전남

구례 : 4월 20일 : 지역축제기간에 선전전

5) 충남

논산 : 프랑 걸기

2. 쌀수입개방 반대 전여농 2차 동시다발 선전전 계획

(1) 목적

- 여성농민의 활동역량에 맞는 실천활동을 전개하여 투쟁의 주체가 된다.
- 사안별 투쟁에 대한 논의력과 대응력을 높여낸다.
- 실천에 따른 교육과 토론을 진행한다.

- 전여농 조직의 실천적 통일성을 강화한다.

(2) 의의

메시지 농업현안에 대한 투쟁들이 농민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농민회의 일정에 따라 시·군여농과 도연합은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평가에서 여성농민의 실정에 근거한 투쟁을 전개하여 여성농민의 투쟁력을 높여내고 사안에 따른 교육과 토론을 일상적으로 전개할 것에 대한 과제가 제출되었다. 여성농민 스스로가 실천의 주체가 되고, 투쟁과 실천을 할 때만이 여성농민의 지위와 현실에 대한 각성이 높아지며, 조직으로 철저히 단결하는 기풍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또한 전국의 시·군여농이 단일한 사안으로 동시에 실천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전여농을 단일조직으로서의 그 위상을 높이고, 전여농으로의 단결, 단합을 높이는 실천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3) 선전전 일정 및 장소

- 6월 15일 ~ 20일 사이에 지역의 일정에 따라 시기를 정한다. (장날 등을 고려한다.)

- 시군여농의 곳곳에서

※ 학교별로 잘 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4 전여농 여름 농활 계획

1. ‘농촌지역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마을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민중가정·평등가정을 위하여’ 라는 자료집을 제작하여 마을별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군여농이 존재하는 곳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 김대중 정부의 여성농민 대선공약 이행 평가 설문조사

전여농에서 설문지를 마련하여 마을별로 여성농민들이 직접 평가설문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문 분석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 여성농민 대선공약 이행 토론회를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별로 마을별로 정확한 목표를 세워서 설문을 진행한 이후에 그 숫자대로 정확히 수거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상 제대로 수거를 못해드리면 불신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의 내용은 전여농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확정안을 내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곧 다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시군여농에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작년 제작년 농활을 진행하는 과정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는 것과 함께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시군여농 단위에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시군여농 차원으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5 전북 여성농민한마당 알아보기

전북 지역 여성농민의 하나된 목소리와 몸짓을 모아내기 위해 몇 해전부터 진행하게 된 전북여성농민한마당이 벌써 올

해로 4회를 맞고 있습니다. 여름농활 기간에 맞추어 진행해왔으며 그래서 학생들도 함께 전북여성농민한마당을 함께 해오는 기간 과정이었습니다. 전북여성농민한마당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별로 차를 빌려서 한마당 장소로 모이는데 버스 안에서의 관광버스 춤이 가장 신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한다. 올해는 순창군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활동과 모범을 총화하고 싶으나 아직까지 잘 정리되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총화하지는 못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2일 진행하게 될 전북여성농민한마당의 대략적인 기획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쳐야겠습니다.

1. 사업명 : 제 4회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2. 사업 개요

- ① 일 정 : 2002년 7월 2일 (화) 오전 11시 ~ 저녁 6시 (당일) -개회식은 오후 2시
- ② 장 소 : 순창군 체육관 야외행사장
- ③ 주 관 : 전북여성농민회연합
- ④ 참여인원 : 1,000여명
- ⑤ 참가대상 : 전라도내 여성농민과 가족
- ⑥ 주 제 : 가자, 평등의 세상으로!!
- ⑦ 후 원 : 전라북도

3. 목적

- 가부장적인 농촌사회에 양성평등의 의식을 넓혀내고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계기 마련.
- 여성농민이 우리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구성원임을 스스로 느끼게 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계기 마련.
- 농업이 인류의 생명산업임을 재확인하고, 농업생산에서 여성농민의 역할 증대에 따른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향상과 여성농민 정책실현을 위한 계기 마련.
- 여성농민회가 여성농민의 발전을 위한 대안조직임을 확고히 하고 조직적 강화를 이룸.

4. 대회 일정

- 11:00 ~ 11:30 **대회장 집결**
- 11:30 ~ 1:00 **점심식사**
- 1:00 ~ 2:00 **여성농민 대동한마당**
 · 시군별 자체행사 - 체육대회, 사진촬영, 뽀네기 대회 등의 형식.
- 2:00 ~ 2:30 **개 회 식**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대회사 (전북여성농민회연합 김금엽 회장)
 · 내빈소개
 · 축 사
- 2:30 ~ 4:00 **여성농민 평등한마당**
 · 전북여성농민회연합 노래단 청보리사랑 공연
 · 평등세상을 향한 몸짓(장기자랑)
 · 민중가수 류금신 공연
- 4:00 ~ 4:30 **폐 회 식**
 · 시상식
 · 평등선언문 낭독

특별행사

- ‘양성평등’ 사행시 짓기
- 여성농민 솜씨자랑 전시회
- 여성농민 시화전, 사진전
- 여성농민 고충과 자녀문제 상담(정읍시민법률상담소)
- 건강검진

5. 주요 행사 및 내용

- **여성농민 대동한마당**
 각 시군 별로 여성농민 단합의 자리를 갖는다. 형식은 체육대회, 사진찍기, 뽀네기대회 등 다양하게 갖되 함께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군 여성농민회에서 자율적으로 진행.
- **여성농민 평등한마당**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시군 여성농민회 장기자랑을 진행함.
 민중가수 류금신, 전북여성농민회연합 노래단 청보리사랑 노래공연.
- **여성농민 시화전, 사진전**
 각 시군 여성농민회 활동내용을 담은 사진전과 여성농민이 직접 지은 시를 바탕으로 시화전을 준비.
- **여성농민 솜씨자랑 전시회**
 여성농민들이 취미나 특기를 발휘하여 제작한 공예, 서예, 지수 등의 작품을 모아 전시.
- **‘양성평등’ 사행시 짓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심으로 ‘양성평등’ 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어 폐회식에서 시상함.
- **건강검진**
 한의사회 등에 의탁하여 즉석 건강검진 실시.
- **여성농민 고충과 자녀문제 상담**
 여성농민의 부부간, 고부간의 문제 및 기타 고민거리를 상담하고 필요한 법률자문을 해 주며, 청소년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실시.



II. 농활 진짜로 잘 하십시오.

1 준비를 잘 하십시오.(준비과정)

1. 10일의 기적

- 여성해방대학 총여학생회 2002년 여름농활 사업계획서(예를 들어 서술합니다.)
 - 10일 전에 농활자료집을 제출하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쳐서 쓰기보다는 이에 맞추어 대학 별로 단위별로 맞추어서 고민해 보는 것이 나올 듯 해서 그대로 제출드립니다. 다시 한번 늦어진 데 대해 죄송합니다.

(1) 기간 여름농활에 대한 평가와 2002년 여름농활의 중요성

여름농활은 7박 8일간의 간고한 조직생활과 학습, 실천 속에서 일꾼들이 단련되고 대중 속에서 핵심을 발굴하는 아주 유력한 공간, 그리고 농촌 사회에서의 여성농민의 삶을 절실히 느끼며 학생들과 여성농민들에게 여성문제를 의식화하고 여성농민회와의 조직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활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이전의 분반활동 프로그램을 단위에서 반복하는 치르기식 사업으로 전락된 측면이 많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의식화 수준, 여성농민회와 연대의 수준이 진전되지 못했고, 농활이라는 대중사업속에서 여학생회의 조직적 성과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눈앞에 다친 농활을 준비하다 보니 전 간부가 농활준비에만 매달리게 되었고, 농활 직후부터의 방학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미리 논의하지 못해 농활 이후의 후속 작업은 물론 방중 사업과 투쟁 또한 형식적으로 잠깐씩 일정에 쫓겨다니는 상황이 악순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계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의 조직적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의 대중사업 속에서 핵심을 발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2-2003년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농활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002년 여름농활의 구체적 목표와 계획수립에서부터 후속작업까지 내실있게 진행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여성농민과의 연대를 실현하고, 여학생회의 조직적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2) 농활 기본 흐름

- ① 총여학생회 차원의 농활 주체를 꾸립시다.
- ② 농활 계획 및 단위별 목표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 ③ 그리고 단대별 마을별 여농주체를 마련합니다.
- ④ 농활 조직화(주체 및 농활대원, 여농분반원) 및 교양을 내실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 ⑤ 농활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 ⑥ 후속작업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3) 2002년 여름 농활의 구체적 목표와 대략적 계획

1) 연대사업 측면

① 답사와 간담회를 반드시 진행하자.

지금까지는 농활 기간 중에 규여농분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 친분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나 사업적 연대로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마을 답사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촉박하고 총여학생회에서 직접 마을을 일일이 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마을 답사는 해당단위가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총여학생회는 여성농민회에 미리 전화연락을 하고 답사 때는 여성농민회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간담회 내용으로는

- 들어가는 마을에 대한 총화 (마을 분위기, 여성농민회 회원이 있는지, 영향력 있는 여성농민 등...),
- 분반활동 계획에 대한 공유

2002년 7월 25일

-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대략적 논의,
 - 학생들에게 교양을 해주실 데 대해 제안(농활학교에서의 강연과 분반주체들과의 간담회),
 - 이후 일정 잡기 :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연추회의) 일정과 교양 일정
- ② 연추회의 속에서 분반활동 내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함께 짜도록 하자.
- 여성농민회와 여학생회의 공동 사업
 - 마을 여농반 활동때 함께 여성농민회장님과 함께 진행하기.
 -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농민학생 통일한마당 때 여성농민회와 여학생회가 함께 문화공연 준비하기 등.

2) 조직사업 측면

여농반 주체들을 여학일꾼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여농반 활동을 통해서 여성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목적의식적으로 분반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체 자신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후속작업과 총여학생회 사업으로 묶어내어 농활을 통한 여학생회의 조직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① 마을별 여성농민반 주체를 반드시 세운다.

여학일꾼이 있는 단위는 여학일꾼이 주체를 맡고 분반원을 꾸립니다. 그리고 주체가 분반원 및 마을 대원 전체에게 직접 교양을 반드시 진행합니다. 여학일꾼이 없는 단위는 중앙농활 준비 회의 속에서 분반 주체를 반드시 강제합니다.

② 분반 주체가 이후에도 총여학생회 두리로 묶이기 위해서 교양과정을 혁신하자.

지금까지는 주체들에 대한 교양이 형식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나누어주고 여성농민의 현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정도만 하고 분반활동 프로그램을 해설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분반주체들이 목적의식성이 결여되고 여성농민반 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실제 제출된 프로그램만 겨우 치르기 식으로 수행하여 여성농민의 의식화수준이나 주체 스스로의 의식화수준이 진전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교양의 목표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민의 삶을 절감하게 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력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성농민의 삶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속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양과 토론을 내실있게 진행합니다. 또한 농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반드시 진행하여 농활공간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통해 성폭력의 심각성과 여성문제의 인식력을 높여내고 실천 방도(마을에서의 규율)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합니다.

③ 구체적 방도로는 농활 주체들과 여성농민회 분과의 간담회를 진행.

여성농민회 분을 모시고 당신의 삶을 직접 듣고 질문과 토론 속에서 분반주체들이 여성농민의 삶이 얼마나 억압적인가에 대해 절실히 느끼도록 합니다.

④ 분반 주체들과 함께 준비과정에서 분반활동을 직접 해보자.

경험이 없고 학번이 어린 대부분의 분반주체들이 말로 설명만 듣고는 실제 마을에서 분반활동을 수행하는데는 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반주체들과 함께 사전에 실제상황과 똑같이 리허설(〃)을 해보자. 직접 해보고 나면 주체들의 자신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3) 의식화사업 측면

농활이라는 공간이 실제 아주 대중적이고 여성농민의 삶에 대해 의식화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에서 따로 여성농민과 분반활동에 대한 선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농민의 삶에 대한 내용을 기본이고 분반활동에 대한 선전을 통해 분반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농활을 가고자 하는 여학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농활 대원들에게도 교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의식화를 놓치지 말고 진행합니다.

① 기본적 선전을 반드시 진행하자.

여성농민의 삶, 농촌사회의 가부장성, 분반활동 의의와 프로그램(홍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을 자보선전, 플랑, 홈페이지 등에 선전합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에서도 농활 신청을 받도록 합니다.

② 분반주체들에 대한 교양(조직적 목표에서 서술)

③ 전체 농활 대원들에게 교양을 반드시 진행하자.

농활 학교에서 여성농민의 삶(여성농민회 분 초빙 강연)과 분반활동에 대한 교양을 진행합니다.

4) 1단위 모범을 창출하자.

연대활동 측면의 성과, 의식과 수준을 높여내는 성과(여성농민, 농활 대원), 여학생회의 조직적 성과(대중 속에서의 핵심발굴)를 모두 내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도 그러한 모범을 전파하고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한마을을 정해 모범을 창출합니다.

① 마을을 설정하자.

이전에 그 마을에서 농활을 수행했던 농활 대원의 이야기와 여농에서 바라본 그 마을의 분위기를 종합하여 마을 분위기가 좋고,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성과를 내어올 수 있는 곳을 설정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마을은 비교적 젊은 여성농민이 많고 여성농민간의 유대감이 높은 곳으로써 여성농민회와 연계를 맺어주면 이후에 회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마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 과정에서 학생들이 농활이 비교적 모범적으로 진행됐던(농활의 기풍이 잘 잡혀있는) 마을이어야 좋습니다.

② 참여학생회 일꾼이 그 마을의 농활 준비 과정에서부터 결합하여 농활 준비를 함께 진행한다.

모범 창출 마을의 농활 계획과 준비과정에 참여학생회 일꾼이 직접 결합하여 함께 준비하고 분반 주체와 분반원, 마을 전체 농활 대원에 대한 교양을 참여학생회 일꾼이 직접 진행합니다.

③ 농활 수행 과정에서 분반 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주체를 보좌하고 대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든다.

실제 농활 수행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분반 활동은 분반주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보좌를 잘 해준다. 또한 마을의 전체 농활 대원들과 친분을 쌓고 특히 개별적으로 여학생들에 대한 총화를 자연스럽게 하고 여성문제와 여학생회에 대해 쉽게 교양을 진행해서 이후에도 여학생회 두리에 묶일 수 있도록 합니다.

(3)역량 배치를 잘하자.

농활이 중요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참여학생회 전 일꾼이 농활 준비에만 매몰되어 방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방학기간의 사업과 투쟁에서 성과를 내어올 수 없습니다. 농활에서의 조직적 성과들까지 다 놓쳐 버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활을 떠나기 전에 농활후속작업과 연관지어 농활 이후의 사업과 투쟁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흐름을 반드시 내어 와야 합니다.

① 농활 준비주체를 명확히 한다.

참여학생회 일꾼 중에서 농활 주체를 한 명으로 명확히 하고 나머지 일꾼 중에서 5,6월 사업(40일 비상)평가, 방중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주체를 따로 세웁니다.

② 회의를 잘 조직한다.

농활준비에 관련한 회의, 40일 비상 평가, 방중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회의를 제때에 조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도록 잘 병행합니다. 회의 공간에서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모든 일꾼이 깊이 고민하여 논의를 하되 고민의 중심과 집행은 각 일꾼에게 분공된 영역을 가장 중심에 두고 진행합니다.

(4)구체적 준비흐름

18일 (화)	참여학생회 농활 회의 (1차)	여성농민과 관련한 학습과 토론, 농활 계획서 초안 마련 (전여대협 농활자료집 참조)	
	의식화 선전 (1차)	플람, 자보, 홈페이지 기사판, 화장실 유인물 (여성농민의 삶에 대한 내용)	
	여농에 전화연락	안부를 묻고 20일에 진행할 간담회 약속 잡기	
19일 (수)	중앙 농활 준비회의의 결말	여성농민, 여농학 연대에 관련한 교양, 참여학생회 농활 계획서 해설, 마을별 여성농민과 관련한 담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고 마을별 분반주체를 반드시 세울 것에 대한 강제	
20일 (목)	담사 (군여농과의 간담회)	마을 총화, 분반활동 계획에 대한 공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략적 논의, 학생들에게 교양을 해주실 데 대한 제안 이후 구체적 일정 협의	
21일 (금)	참여학생회 농활 회의 (2차)	군여농과 간담회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 고민 진행, 농활계획서 수정, 보완	
22일 (토)	여농과 간담회 및 연주회의	오전: 분반주체들과 함께 여성농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 (교양 위주) 오후: 여학생회와 함께 진행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	
23일 (일)	참여학생회 농활 회의 (3차)	여농과의 연주회의를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농활 계획 완성.	
	의식화 선전 (2차)	분반활동을 중심으로, 참여학생회차원으로 농활 신청 받기 내용	
24일 (월)	분반주체회의 (1차)	농활 성폭력에 대한 교양, 분반활동에 대한 설명, 분반주체들과 실제로 분반활동 해보기-리허설	참여학생회 차원으로 농활신청 받기
		여성농민의 삶에대한 강연 (여성농민의 분을 직접 모시고...)	
25일 (화)	전체 농활 학교	분반활동에 대한 교양	
26일 (수)			
27일 (목)		최종점검	

※단위의 실정에 맞게 여농학 연대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합니다.

1) 농활을 수행하는 마을이 속해 있는 군여농(또는 군여농 산하 면지회)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연대할 수 있는 여농이 있으나 존재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확실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2) 2002년 여농학 연대의 목표를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정합니다.

연대할 여성농민회(군여농, 여농면지회)가 없는 경우, 연대할 여농이 있으나 지금까지에 연대가 되지 않았던 경우, 어느정도 친분관계는 있으나 조직적 연대활동이 되지 않았던 경우, 얼굴조차 트지 못한 경우 등 어떤 경우라도 준비과정에서 여성농민회와 연락을 취하고간담회부터 진행해봅시다. 간담회의 내용과 수위는 여학생회의 수준과 역량, 여성농민회의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합니다.

① 얼굴 트고 친분 쌓기

미리 전화연락을 드리고 담사 때 학교 여농 주체가 여성농민회 농활 주체와 만남을 가집니다. 농활 기간중의 하루를 잡아서 여학생회 및 분반주체들과 여농 언니들과의 간담회자리를 마련할 데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간담회의 수준은 소풍을 간다는 기분으로 여농 언니들과 얼굴을 트고 친분을 쌓는 정도로 설정합니다. 다시 말해 근처의 좋은 장소를 정하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가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여성농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의 농활부터는 함께 분반활동을 준비할 데에 대한 합의를 하는 정도로 설정합니다.

② 준비과정에서 간담회만 진행하기

군여농 또는 면 지회가 아예 없는 경우는 농활 수행 과정에서 여성농민회와 함께 사업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농활 준비과정에서 도여농과의 간담회라도 꼭 진행해봅시다. 참여학생회 일꾼 및 분반주체와 도여농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농활에서의 여농한 활동의 의의와 중요성, 여성농민의 삶에 대해 더욱 실질히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체 농활 학교에서 강연을 설의해 봅시다.

③ 준비과정에서 농활 수행, 후속작업까지 여농과 긴밀히 연대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여농학 연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내기

위의 구체적 사업계획(예)에 전반적으로 녹여져 있습니다.



2 이제 마을로 들어가자! - 여성농민연대활동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이제 농활을 직접 가서 어떻게 농활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농활을 가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여성농민연대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준비한 만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농민연대활동은 농활기간 모든 활동에서 진행됩니다. 하기에 근로활동에서, 분반활동에서, 마을잔치, 통일한마당(여성농민한마당)에서 어떻게 여성농민연대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비오는 날 어떤 활동으로 여성농민연대활동을 높여낼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1. 근로활동과 일상적 활동



(1) 여성농민들과 대화하기

여성농민반 활동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논밭에서나 호별방문에서의 여성농민분들과의 대화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활동인데도 오히려 더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농활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이니 만큼 잘 진행합니다~ 꼭이요~!!

1) 여성 농민을 대상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전 이렇게 되어야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설명이나 강의식의 대화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를 모르는 조급성과 여성 농민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학생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자신의 삶의 기반에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모순들을 더 명확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2) 자식이 엄마에게 응석을 부리듯이 배우려는 자세로 임합니다.

이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00는 참 개구쟁이지요? 학교 생활을 잘하는지 모르겠네요?"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나 "낮에 보니까 아저씨가 참 호탕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집안 일도 잘 도와주시나요?"로부터 기사 분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게 한다든지 등등으로 따분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정세나 정책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되 가르치려고 하거나 주입하려고 하면 안돼요!

같이 공감하며 호응하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할 이야기들만 쟁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다보니 일방적인 이야기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여성농민의 삶의 지혜를 배우다는 자세로 대화를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5) 함께 작업할 때 농사일이나 기르는 작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일이라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겠죠. 그런 소재로 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WTO 쌀수입 개방이나 6·15 공동선언이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 자연스럽게 살아오신 이야기, 신변잡기에 관한 이야기, 자식 이야기 등 어머니 자신의 삶에 대해 물어봅시다.

어머님들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성농민의 현실이 어떠한지 절감하고, 어머니의 위대한 삶을 배우고 어머니의 위대함에 대해 느낄 수 있겠죠.

7) 이야기 속에서 마을 상황과 생활에 관련한 질문을 해봅시다.

마을의 어머님들의 성향이나 모임의 유무, 영향력 있는 분, 마을의 분위기 등 이런 이야기들은 이후에 분반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8) 우리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한다면 방북하신 농민들의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마을에서 혹시 방북하신 분이 있는지, 가시는 분마다 선물을 직접 키운 농산물을 가져갔는데 어머님을 만약 가신다면 뭘 드리실 건지 등등 요즘 서로 왕래가 많아졌는데 어머님은 복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 노동자들의 방북, 농민들의 방북을 통해 이제 서로 만나는데 아직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다.

9) 농사일 해보면서 내가 느낀 힘든 점을 이야기하며 농민과 농사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짧은 기간동안 일하면서 농사일에 대한 생각과 어머님들이 하시는 농사일에 대한 중요성, 어머님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해봅시다.

◎ 주의사항

- ▶일은 계속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야기하느라 일의 속도가 느리면 어머님들이 신경을 쓰십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할 경우 어머님은 맘이 불안하시겠죠.... 인능 일좀 허브 쓰겠네...)
- ▶혼자 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 아파서 일을 못 하겠는 경우 말씀을 드리고 숙소로 돌아가더라도 한쪽에 혼자 쉬고 있으면 어머님이 미안해 일을 못시키시겠죠.- 어머님들은 매일 365일 하시는 일입니다.)
- ▶이야기를 나눌 땐 늘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일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업 시 먼 거리에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르며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이야기하면서 일을 합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적절한 질문과 대답을 유도하는 진행의미를 발휘해야죠.



(2) 마을방송



농촌은 대부분 마을 방송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의 농활대와 마을 농민들이 하나가 되어 느끼고 배우고 공감하는 내용으로 마을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농민분들과 더 많은 내용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1) 마을방송 주제를 세웁니다.

마을방송 주제를 세우는 방식 : 마을방송 주제를 한 명으로 세울 수도 있고, 찻날, 마을잔치, 전날, 끝날은 농활대장이, 나머지 날은 분반마다 돌아가며 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농민반은 여성농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죠.

① 마을방송 주제활동 :

- 준비 : 사전답사, 실무점검(녹음카세트, 마이크, 방송용 노래테이프, 방송멘트 작성, 사회자 섭외 및 교육),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주체님과 농활기간동안의 방송내용 공유
- 마을방송

② 마을방송주체의 하루활동의 예

- 6시 마을방송 : 30분간 마을 방송을 진행
- 점심시간 : 저녁방송을 점검
- 저녁식사 전 마을 방송 : 30분 정도 마을 방송을 진행
- 저녁시간 : 농활대 전체에 대한 마을방송을 위한 분반활동 점검
- 평가시간 : 전체평가를 하고 마을방송 평가의 주체가 되어 평가를 진행
- 잠들기 전 : 내일 마을 방송 준비와 기획방송준비.

* 마을방송주체는 작업반장과 분반주체와 함께 하루활동계획을 총화합니다. (평가 끝나고, 아침시간에)

* 마을방송주체는 식사당번에서 제외시킵니다.(아침에는 방송하고 점심에는 농활대 방송준비총화, 저녁에는 저녁방송준비를 합니다.)

2) 마을방송에 여성농민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봅시다.

분반마다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여성농민반 방송 때, 아닌 경우에는 마을방송주체와 상의하여 여성농민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봅시다.

◎ 내용

- 마을 여성농민의 수기 (농활 진행 전에 직접 여성농민분들께 부탁하여 여성농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글 조직)
- 여성농민 노동력 인정
- 여성농민 건강과 관련된 내용 - 건강상식
- 농촌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 농민학생 통일한마당 여성농민 참여에 대한 홍보
- 여성농민반 분반활동에 대하여

- 지역 여성농민회 분 인사 및 여성농민회 소개
- 여성농민 노래 틀기 : 청보리 사랑 테이프에 나와있는 곡 틀기 (청보리 사랑은 전북여성농민회 노래패입니다. 전북여농이나 청보리사랑으로 직접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여성농민 분반활동에서 배울 노래, 여성농민 관련 개사곡

이러한 내용은 핵심을 중심으로 짧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에서 일을 하면서 듣거나, 쉬면서 듣는 것이기에 길어지면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조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하여야 한다. 라디오 드라마처럼, 하나의 대본을 짜서 기획방송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고,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생생한 말씀을 취재하여 방송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방송을 할 때는 발음을 정확히 하고, 평소보다 약간 느리게 해야 정확히 방송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3) 호별방문

호별방문, 가가호호 방문 등의 이름으로 매일 저녁 농민분들의 집으로 가서 얘기는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농민반은 분반활동이 날마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은 호별방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별방문하기 전에 호별방문 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을의 분위기 등에 대하여 미리 정리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화를 미리 준비합니다. 보통 호별방문시 어머니들이 적극적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여성농민들과 이야기하려는 자세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을 살려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시다.

어머니들의 경우 농사일 이외에 집에서는 가사노동으로 쉴 틈 없이 움직이십니다. 따로 한가한 시간을 내서 보기보다는 함께 가사노동을 하면서 어머니님과 자연스레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시다.

② 호별방문 때 어머니들이 피곤해하시는 경우에는...

논밭에서 일하랴 가사노동하랴 자식 키우랴 여성농민분들은 저녁시간이 되면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호별방문을 가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매우 피곤해하시거나 적극적으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사노동을 같이 하거나 안마를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 분반활동

(1) 여성농민반 분반활동이 뭐예요?



여성농민은 이 땅 민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산의 주인, 생명의 어머니로 바로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검은 얼굴, 고목 같은 손을 지닌 우리의 친근한 어머니, 할머니이십니다. 농활 기간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 역시 여성농민입니다. 농활 수행 중 학생들에게 가장 호의적이며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신경 써 주시고 학생들에게 반찬 한가지라도 가져다주시려는 모습, 피곤한 몸을 누이고 싶은 간절한 생각에도 학생들 생각에 분반 활동에 적극적으로시던 모습, 바로 여성농민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성농민들의 삶은 너무도 딱딱하지만 합니다. 가정, 사회, 국가로부터의 소외뿐 아니라 농민정책 속에서도, 여성들 사이에서조차 불평등을 느끼는 계층입니다. 농업의 절반의 몫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대접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만 하시는 어머니

여성농민반 활동은 너무나 소중한 어머니의 삶을 배우고 느끼며, 어머니들의 개선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농민회의 건설과 강화를 통해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진행됩니다.

또한 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민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면 투쟁은 반쪽짜리로 힘있게 만들어가는 데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내지 못했던 여성농민의 현실을 구체화된 소리로 만들어 내기 위해 여성농민반의 활동이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 ① 개별화된 여성농민들에게 집단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② 여성농민의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여성농민들의 공동의 문제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듭니다.
- ③ 학생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여성농민들의 삶과 여성농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대화를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 ④ 여성농민·학생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애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⑤ 여성농민이 농업의 주체이며,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⑥ 여성농민운동과 여성농민회를 선전하고 여성농민 활동가와의 교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분반활동은 농활수행기간동안 매일매일 근로활동, 호별방문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활기간 중 매일 혹은 몇 번씩 시간을 내서 꼭 어머니들을 한 자리에 모셔 놓고 정해진 주제와 프로그램에 따라 분반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농민이 자신들의 처지를 느끼고, 단결하고,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분반활동,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야 분반활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해야지' 혹은 '가서 생각해야지'가 된다면 계획성 없는 분반활동으로 이에 진행되지 않거나 성과를 남기기 어렵습니다.

1) 분반원들을 모집합니다.

2) 분반원들에게 교양을 진행합니다.

교양 들었던 내용이나 자료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3) 하루하루 분반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분반프로그램은 나이대별로 맞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합니다.

4) 전체적으로 함께 준비해야할 것들을 준비하고 분반원들에게 하루하루별 주제를 맡게 하여 준비를 나누어서 진행해줍니다.

노래가사를 쓰는 것 등 분반활동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의 것들을 준비하며 분반활동의 내용에 따라 건강교실 운영자, 노래배우기 등등을 하루하루 주제를 정한 분반원이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분반활동 시 여성농민 조직화 및 유의할 점

1) 분반활동에 여성농민들 조직화하기

- ① 농활 첫날부터 분반활동을 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잘 알려야 합니다. 잠이 될 때마다 마을방송, 근로활동, 호별방문, 타 분반활동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 ② 농활 첫날, 호별방문을 하면서 분반활동의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등이 적힌 예쁜 종이를 집집마다 붙이고 와서 어머니들이 잊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③ 여성농민반 분반활동을 진행하는 날은 '여성의 날'이라고 명명하고 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분반활동에서의 유의점

① 분반프로그램 중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제대로 하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4개 이상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도저도 안되고 성과를 오히려 못 남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많은 예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 2,3개 정도만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머니들의 기억에도 더 남구요~

② 마을의 여성농민분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하자!

첫째, 여성농민분들의 나이에 맞게 진행해야합니다. 50~60대 이상이 대부분인데 자녀들과의 성교육을 하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30대 여성농민들이 있는데 안마만 계속 해드리면 분위기가 안 살겠죠?^^;

둘째, 여성농민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맞게 진행해야합니다. 글을 모르시거나 눈이 잘 안보이시는 여성농민이 계신데 백일장이나 보물찾기 등을 진행하면 안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성농민분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참여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을 잘 알아보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③ 마을 부녀회와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

마을 부녀회장님이나 적극적인 여성농민분들을 만나서 분반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얘기를 잘 하면 분반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을 여성농민들에 대한 사전 정보도 알고, 더 많은 여성농민분들을 분반활동에 조직화해요~*^^*



(4) 분반활동 이렇게 해봅시다.

1) 어머님들과 친해지고 분반활동의 주제로 만드는 활동

① 명찰 달아 드리기

준비물: 종이, 명찰용 비닐

분반활동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서 그동안 잊고 지내셨던 이름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쑥스러워서 안 하실 것 같으나 의외로 반응이 좋으며 꼭 명찰 챙겨 가지고 다음 분반활동 할 때 가져오시곤 하십니다. 어머님들의 지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성농민의 이름을 모두 적어 드리고 이름에 ○○○여사라고 불러드렸던 마을이 있는데 너무나 재미있어하셨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명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님들이 학생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말입니다.

② 동료 소개하기

1. 2명씩 짝을 짓습니다.(학생들과 어머님, 나이 많으신 분과 젊으신 분 등등의 형식으로)

2. 짝을 지은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자기 소개를 합니다.(시간은 5분 정도)

3. 서로 소개가 끝나면 전체 발표 때 상대방을 소개합니다.

③ 사진 찍어 드리기

준비물 : 사진기

어머님들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지만 별로 찍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단체 사진과 함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사진에 담아 봅시다. 이후 마을 잔치나 활동 중 최고의 포즈상을 드리거나 자기소개 시간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현상을 해서 통일 한마당에서도 뽐내기를 하거나, 앨범을 만들어서 마을 회관에 비치해 놓고, 어머님들이 농활대를 잊지 않도록 하는 후속 작업에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④ 보물찾기

준비: 종이, 연필

1. 종이를 3등분으로 접어 가운데 칸에 나의 모습을 그리고, 왼쪽 칸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을, 우측에는 이후에 갖고 싶은 나의 보물을 5가지 정도 적는다.

2. 이 작업이 끝나면, 종이배를 접어, 노래(풍당풍당, 농민가)를 부르면서 옆 사람에게 돌린다.

3. 노래가 끝난 후 자기에게 전달된 종이를 펴서 상대방의 지희상과 보물을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모두에게 설명한다.

4. 설명이 끝난 후, 그 종이의 주인을 알아맞힌다.

⑤ 우리는 짝꿍 - 여성농민과 학생 짝짓기

여성농민 한 분과 학생 한 명, 이런 식으로 짝을 지음시다. 더욱 돈독한 정을 쌓고 분반활동부터 후속작업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여성농민분들 자신의 얘기를 꺼내고 함께 공감하기 위한 활동

① 주제가 있는 수다방

여러 가지 주제를 적은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나오는 주제 별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농사, 집안일, 애 키우기, 투쟁, 통일, 사랑, 남편 홍보기 등등의 주제를 적고 그것을 던져 나오게 한 여성농민 분부터 시작해서 함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아하신다고들 하네요. 주제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② 영상편지 만들기

준비 : 캠코더, TV, 연결선

영상편지는 평소에 하고 싶은 말조차 잘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여성농민분들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얘기를 꺼내놓거나 남편, 자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지 만드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호별방문 때 한 분씩 진행하는 방법, 분반활동 때 돌아가며 진행하는 방법, 마을잔치 때 그 자리에서 진행하는 방법.

영상편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총화 할 수 있습니다. 청장년반 분반활동 때 여성농민들의 영상편지를 틀어 같이 얘기해보게 하는 방법, 마을잔치 때 트는 방법, 농활이 끝난 후 일반비디오 테잎에 호별로 복사해서 보내드리는 방법.

- 영상편지 만드는 방법

1. 캠코더를 준비하고, 여성농민분이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하고싶었던 말 그 동안 못하고 살았던 말을 할 수 있게 한다.

2. 마을잔치나 청장년반 분반활동 때 본다.

3. 마을잔치 때 틀게될 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적당히 해서 틀면 좋다.

③ 아리랑 고개 넘기(나의 인생 곡선)

준비물 : 종이, 연필

1. 먼저 종이 한 장씩 나누어주고 종이 중앙에 직선을 긋는다.

2. 직선 위에 태어났을 때, 현재, 죽을 때의 3개의 점을 찍는다.

3. 그리고 차분히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

4. 그때 그때의 기분을 다시 새겨 본 후 기뻐할 때는 선 위로, 슬펐을 때는 선 아래로 점을 찍어 날짜와 그 내용을 적는다.

5. 아주 기뻐할 때는 점을 더욱 위로 찍고, 아주 슬펐을 때는 점을 더욱 아래로 찍는다.

6. 점과 점을 연결하면 아리랑 곡선이 만들어진다.

7. 작성된 아리랑 고개를 가지고 전체 발표를 한다.

3) 분위기를 돋우는 프로그램

① 옷놀이

준비: 옷판, 옷, 작은 상품

비 올 때나 밤중에 하기 딱 좋은 전통놀이

1등, 2등 어머님들께 드릴 작은 기념품도 사 가보자. 부부게임으로도 좋다.

② 도전 50곡

준비: 개사곡 등과 민요 가요 등 50곡을 적은 판, 반주가 가능한 모든 것

노래하고 춤추시기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에게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게임 형식으로 준비하여 어머님들과의 만남의 장을 신명나게 가져가자.

③ 노래 배우기

민요나 개사곡 여성농민노래를 배우는 시간

풍물때 및 노래 테잎을 준비하여 함께 배우고 연습하여 마을잔치나 통일한마당 때 해보면 좋을 듯하다. 이왕이면 통일노래(예를 들어 김혜연의 서울명양반나절이나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 대중가요 가운데서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나 개사곡(여성농민의

삶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 개사곡)을 함께 배워볼 시간을 꼭 가져봅시다.

④ 여성농민 팔씨름 대회

⑤ 소지품 이어가기

1. 먼저 두 패로 나눈다.

2.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그리고 길게 각 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옷, 지갑, 휴대, 동정, 신발, 볼펜, 양말, 공책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속옷까지)을 늘어놓는다.

→협동으로 놀이도 즐기며, 또한 놀이에 사용된 지폐나 동전은 뒷풀이 때 술값이나 안주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⑥ 천연 팩하기

지천에 널려 있는 감자, 오이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팩을 하면서 반드시 어머니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합니다.

4) 틈틈히 쉬어가는 건강교실

혼자서도 쉽게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 건강을 지키는 방법 등이 적힌 종이를 미리 만들어가서 건강교실을 하면서 나누어드리면 농활이 끝나고 나서도 여성농민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손바닥 자극 민간요법

잠자기 전에 손바닥을 서로 비벼 주면 숙면할 수 있고 다음날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양 손바닥을 강하게 비벼 주면 손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붉은 빛이 돈다. 이것은 손바닥의 혈관이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잠자기 전에 1-2분 정도 이부자리에서 누워 실시한다.

② 손바닥 치기

아침에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면 머리와 몸을 강화시킨다. 손바닥 한가운데는 심장의 작용을 도와 뇌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뇌의 작용이 활성화되어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도 눈이 번쩍 떠지고 졸음을 쫓아내는 작용을 한다. 아침에 이부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양손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손바닥끼리 세계 3번 정도 쳐준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으로 곧게 뻗은 다음 세계 3번 정도 쳐준다. 팔이 구부러지면 안되고 손바닥은 꼭 맞게 쳐야 한다.

③ 어깨 결림

어깨 결림을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자극법으로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사이에 있는 함곡, 또는 손등에 있는 둘째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결정점으로 이 함곡과 결정점을 자극하면 어깨 결림을 풀 수 있다.

④ 이쑤시개로 자극하는 방법

이쑤시개를 10개정도 묶어 이것으로 손등이나 손바닥을 자극하면 이쑤시개의 날카로운 부분이 손의 혈관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가볍게 손바닥이나 손등 전체를 3초 동안 눌러 주었다가 떼고 하는 방법을 반복하면 체력이 향상된다.

⑤ 수지침 내지는 쑥뜸

수지침이나 쑥뜸을 배워서(그리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고 합니다. 대학에 한의대나 의대, 약대 등이 있으면 분반원들이 미리 배워가면 좋겠구요) 여성농민들과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⑥ 기체조, 도인체조, 활공 등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내 동아리들에서 배워가도 좋겠고, 동아리들을 직접 조직화해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⑦ 스포츠마사지를 합니다.

스포츠마사지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스포츠마사지는 체육학과 학우들은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할 줄 압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학과 학우들에게 간단하게 배워가서 진행해봅시다.

5) 여성농민들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풀고 내용 채우기

아동반의 어린이 성교육, 청소년반의 성교육 강연회

농활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강사를 직접 모시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가며 진행하되, 성교육 강연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식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 유아 성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전여대협 홈페이지 속보란을 참고하세요. (<http://jydh7.luhome.com>)

6) 어렵고 복잡한 투쟁의 내용을 쉽게

① 만화대자보 만들기- 농산물게방, 가정폭력, 통일농업, 반미 등의 내용 등을 만화로 그려 대자보로 만들어봅니다.

② 비디오 상영

준비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 테크, 텔레비전 및 실문종이

여성문제를 다룬 비디오나 다큐멘터리 등을 보여주면서 여성문제를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바쁜 농사일로 영화나 TV를 볼일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함께 영화를 보면서 여성문제도 이야기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7) 농활대 특성을 살리는 여농반 활동을 진행합니다.

과의 특성, 농활대의 특성을 살려 여농반을 진행하면 준비하는 농활대도 더 자신 있고 신나게 분반활동을 준비할 수 있고, 여성농민분들도 색다른 여농반활동을 더 즐겨워하실 수 있습니다.

예>

미술학과 - 그림 그리기 혹은 도자기 만들기

언니들은 언젠가 소녀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비록 농사를 지으면서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소녀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나 자신이 원하는 세상, 혹은 그림 배우기 시간 등으로과의 특성을 살립니다.

문선대 - 풍물강습

마을 회관에 굴러다니는 장구, 북... 여성농민들끼리 모여서 놀 때도 긴요하게 쓰이는 물건입니다. 풍물 강습을 통해서 마을 잔치에서도 뿔내고, 통일 한마당에서도 공연을 해봅시다!

한의대 - 수지침, 쑥뜸 등

신문방송학과, 영상학과 등 - 여성농민들과 신문 만들기, 영상편지 만들기

신문의 경우, 여성농민들이 직접 글을 써 신문을 만들 수도 있고, 분반활동 때 여성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어 신문으로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마을잔치 때 나누어드릴 수도 있고, 후속작업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겠죠.

사범대 - 전교조선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자녀교육이야기

지역에 전교조 지부가 있으면 어머니들과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체육학과 - 스포츠마사지

등과의 특성, 농활대의 특성에 맞게 여농반을 진행해봅시다.

8) 유형별 분반활동

① 젊은 여성농민이 많은 마을

* 여성농민 글쓰기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 남편에게 띄우는 글, 학생이 쓰는 글 등의 결과물을 가지고 책자로 만들자.

- *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성교육의 자리
- * 다음 카페 만들기
- * 호별방문과 전체 분반활동을 하면서 통일농협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② 중년층의 여성농민이 있는 마을

- * 어머니 건강학교
- 손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마사지, 맨손체조, 민간요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자.
- * 팔씨름 대회

③ 여성농민회 회원도 없고, 5·60대 이상의 여성농민이 많은 마을

- * 어머니 건강학교
- * 노가바 혹은 노래자랑
- * 사진 찍어 드리기

9) 다함께 부를 수 있는 재미있는 노래♪

IV. 도움자료에 있습니다.



3. 마을잔치

마을잔치에서 여성농민들이 음식을 만드는 등 비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을잔치가 여성농민들에게 또 다른 가사노동을 안겨주거나 부담을 안겨주는 장이 아닌, 여성농민반 활동을 총화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분반활동을 총화하는 장으로 만들자.

여성농민반 활동 대 진행했던 결과를 마을잔치 장소 옆에 전시하거나 마을잔치 무대에 나와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마을잔치 무대에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여성농민분들과 학생들이 함께 합니다.

(2) 마을잔치 음식은 학생들이 하자.

마을잔치 때 나눠먹을 음식은 여성농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라. 특히 여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학우, 남학우 함께 함으로써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모습을 농민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4. 통일한마당이나 여성농민한마당 때

(1) 통일한마당에 여성농민 조직화하기



통일한마당에 여성농민을 조직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남성농민들이 통일한마당에 참가하면 집을 비울 수 없거나 애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여성농민들은 집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일한마당에 여성농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해서 여성농민 대동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① 통일한마당 선전

여성농민들이 통일한마당에 참가할 수 있도록 통일한마당에 대해 대대적인 선전을 진행합니다.

“어머니~ 통일한마당, 꼭 같이 가요~” “언니~ 통일한마당 손잡고 가요” 등 폴랑을 마을입구에 붙인다거나 집집마다 조그만 종이에 써서 붙이는 등의 선전을 진행합니다.

② 통일한마당에서 여성농민 참여의 공간 확보

학생회 사업이 그렇듯 자신이 직접 행사를 만들 꺼리가 있으면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통일한마당에서도 여성농민이 직접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참여를 유도합니다.

마을별 분반활동의 총화, 모든 마을의 여성농민이 함께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판 흐름, 여성농민 놀이마당 등이 있습니다. 아래 ‘여성농민 대동의 장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③ 직접 모셔오기

보통 통일한마당 하기 전에 집집마다 돌면서 통일한마당에 농민분들을 모셔갑니다. 이 때 여성농민분들을 빠짐없이 모셔갑니다. 가사노동을 마무리 못하셨다고 하면 직접 도와드려서 빨리 마치고 갈 수 있게 말이죠.

④ 아이들은 아동반 청소년반이 책임진다.



(2) 여성농민 대동의 장 만들기

여성농민들이 통일한마당에서 더욱 대동단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에 맞게 활용하세요.

① 여성농민 대합창

마을별로 진행할 수도 있고, 군/면 전체가 똑같은 노래를 분반활동에서 배워와서 다같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노래는 통일노래가 개사곡 등이 좋겠습니다. 꽃술이나 소품 등을 준비하면 분위기가 한층 좋아지겠죠. 군/면 전체 여성농민 대합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마을별로 특색있는 소품을 준비해올 수도 있습니다. 노래 중간에 여성농민들의 멘트나 편지낭송 같은 것을 곁들이면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여성농민분들이 가사를 다 못 외우실 수도 있으니 가사만 적힌 종이를 준비해오면 좋겠습니다. 이때 여농반 분반원들은 무대에 같이 올라가서 노래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 옆에서 준비된 춤이나 막춤 등 율동으로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농활대들은 마치 팬클럽처럼 피켓, 폴랑 등을 써와서 무대 밑에서 미친 듯이(!) 응원하면 여성농민분들이 더 힘이 나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실 겁니다.

② 여성농민 노래자랑

농활대가 들어간 마을에서는 미리 분반활동 속에서 어머님들의 노래공연을 해보고 대표단을 뽑아서 참가합니다. 농활대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는 군 선전단이 활동하며 대자보 홍보나 프랑카드 선전을 진행하거나 마을 방송을 통해 적극적 참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상품을 준비해야겠죠!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공동 문예공연이나 가족 노래자랑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과 상품, 상패 등. 상품은 북한 술이나 가정용품이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건 등이 좋겠죠! 준비한 노력이 중요하니 각종 상 이름을 붙여서 다 드리는 방법도 고민해보세요. 상 이름도 당당한 여성농민상, 여성농민 대단결상, ...등)

③ 여성농민 팔씨름 대회

각 마을마다 여성농민들이 몇 명씩 참가해서 팔씨름 대회를 진행하고 우승을 가립니다. 농활 대원 여학생들도 몇 명 참가하거나 여성농민 1명, 여학생 1명 팀을 짜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 : 참가 신청서, 리그전 표, 테이블, 심판, 호루라기, 상장 또는 상패와 상품

④ 여성농민 장애물 달리기 대회

통일을 막아나가는 장애물들을 여성농민의 힘과 지혜로 깨부수며 달려 백두산에 도달하는 형태로 장애물달리기 진행. 여성농민의 노동력을 인정하지 않는 장애물도 같이 설치해볼 수 있겠죠.

장애물 정하기 -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미국의 MD, 수입개방, 집안일 전담, 가정폭력, ... 등등

마을 참여, 개인참여 등 형태를 미리 상황에 맞게 합의

⑤ 여성농민 글짓기 대회

여성농민 수기글 시나 수필 등 다양한 형태의 글짓기를 진행하여 시상한다.

⑥ 여성농민 놀이마당

여성농민들이 어린 시절 많이 해보았던 놀이들을 통일한마당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학생들이 손을 잡고 함께 진행하면 매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미리 놀이마당으로 한 장소를 지정해놓고 각종 선전을 진행해야겠죠. 널뛰기, 공기놀이, 고무줄, 투호, 고리걸기, 자치기 등이 있겠습니다.

(3) 그 외 통일한마당에서 여성농민이 주체가 되기 위한 방안들

부부 2인 3각 달리기대회

부부가 한마음으로 달릴 수 있도록 체육행사에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밀가루 속에 사탕 먹기, 2인3각 달리면서 공 굴리기 등의 과제들도 함께 하면 더 재미있겠죠.

5. 비 오는 날에는

농활기간 중 비가 오는 날에는 물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일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해가지 않으면 비가 오는 날은 별 의미 없게 보내거나 농활대 전체가 축 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 오는 날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성농민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농활대원들과 교양하고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1) 여성농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① 분반활동 프로그램 진행하기

여성농민분들을 한집으로 모셔서 분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있는 분반활동 시간의 프로그램이 아닌, 따로 준비해가는 프로그램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반활동 때 노래배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비오는 날에는 시간이 많으니 아리랑 고개넘기와 영상편지 만들기를 진행한다면, 비디오를 같이 본다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비오는 날은 안마나 마사지가 좋습니다.

여성농민분들은 비오는 날에는 몸의 고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집으로 가는 것도 꺼려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안마나 마사지로 여성농민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립니다.

③ 마을잔치나 통일한마당을 더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2) 농활대원들과 교양하고 토론하기

농활대원들에게 여농반의 내용을 교양하기 더 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되었던 교양의 내용을 농활대원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① 미리 준비해갑시다.

비오는 날의 교양내용과 교양형식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물을 꼭 만들어갑시다.

② 최대한 재미있고 시끌벅적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오고 어두운 날이니 농활대원들이 졸거나 몸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분반별 대항 십자말풀이, OX퀴즈 등 시끌시끌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3] 후속작업

1. 여성농민, 여성농민회와의 후속작업

(1) 일상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1) 균여농과 농활 평가를 잘 진행합니다.

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까지도 함께 얘기해본다.

2) 마을별로 여성농민들에게 농활 후속작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① 가능하면 마을별로도 여성농민회나 여성농민들과 농활 공동평가를 해보도록 하자.

② 다녀온 후 바로 전화로 안부를 꼭 물어주도록 하자.

③ 신문이나 유인물, 영상편지 등을 일상적으로 보내드리자.

(2) 사업을 통해 연대의 질을 높여나간다.

1) 2달에 한번 진행되는 전여농 장날 선전전에 직접 결합하도록 하자.

2) 8.15와 남북여성통일한마당 등을 함께 준비해나간다.

3) 가을 대동제 등에서 여성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해본다.

2. 학생들에 대한 후속작업

(1) 농활 평가를 꼭 진행한다.

(2) 각 마을별 주체들에 대한 후속작업을 미리부터 준비한다.

1) 주체들이 이후 여성농민과의 후속작업에 주체가 되도록 하자.

2) 지속적인 연대사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3)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의 두리로 묶일 수 있도록 하자.

(3) 학우들에게 알려나간다.

1) 인터넷 등으로 농활 후속작업을 반드시 진행하자!

2) 개강 시기 농활 진행한 데 대해 알려나간다.

3. 평가를 이렇게 해봅시다.

(1) 농활 가기 전 준비정도 평가

①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② 준비과정은 어떠했습니까?

③ 농활 교양 진행 정도는 어땠습니까?

④ 여농학 연추회의 및 간담회는 진행했습니까? 그 내용을 어땠습니까?

⑤ 준비과정에서의 성과와 부족한 지점은?

(2) 농활 수행 과정에서의 평가

- ① 마을별 여성농민연대주체 또는 여농반 분반주체는 어느 정도 꾸려졌습니까?
- ② 분반활동 진행 정도는 어땠습니까?
- ③ 분반활동을 진행하면서 경험과 교훈이 있다면 총화해봅시다.
- ④ 분반활동 외의 여성농민 관련 활동은 어땠습니까?

(3)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

- ① 여성 농민 학생 연추회외나 간담회 진행 부분 평가
- ② 농활 학교에서 여성농민 관련한 교양 부분 평가
- ③ 여성농민반 주체에 대한 교양 및 모임 평가
- ④ 마을 순회교육 및 설문조사 진행 과정 평가 및 설문 수거
- ⑤ 마을별 실사조사 진행 정도 총화
- ⑥ 1마을 모범창출 사업 평가

(4) 전반 성과와 한계

(5) 후속작업 진행 정도 및 계획

4. 농활주체들과 함께 이렇게!

(1) 마을 실사파악을 잘 해둡시다

마을 실사조사서 틀에 맞추어 내년과 여성농민 현황 파악을 위해 꼭 합시다. 농활 가기 전에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면 다녀온 이후에 농활 기간을 상기하며 작성해봅시다.

(2) 모범총화를 구체적으로 진행합시다.

(모범을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준비와 진행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해봅시다.)

- ① 농활 준비과정에서의 모범
- ② 분반활동을 진행하면서의 모범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③ 여성농민의 현실을 어떻게 느꼈는지 수기 공모합니다.

(3) 마을 여농 주체에 대한 후속작업을 잘 해야합니다.

- ① 평가모임을 꼭 진행하고 뒷풀이를 합시다.
- ② 이후 여성농민과 함께 하는 사업과 투쟁에 그리고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에 적극 조직화합시다.
- ③ 여농 회원분의 집이나 한 마을을 정해서 주말 농활 등을 기획해봅시다.
- ④ 마을 여성농민분들께 후속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을 여농주체를 점검해주어야 합니다.

III. 성폭력 없는 농활 만들기 !



80년대 말 이 땅의 가장 기본을 지키는 농민의 든든한 벗이 되어준 농민학생 연대 활동의 시작으로부터 벌써 십 수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성과들을 낳았던 농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들에 가려 숨죽이고 가려져야만 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해마다 농활에서의 성폭력이 신고되고 있으며, 신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활 또한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문제는 어디에서나 심각한 문제이지만, 농활에서의 성폭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만큼 더 신고조차 되지 않는 등 해결의 수준이 미약했습니다.

2002년 여름농활에서는 농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해가기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펼쳐냅니다. 농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농활 성폭력의 특성에서부터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각인하고 농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갑시다. 양성평등 농활 만들기! 올해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시작해봅시다. 그러면 농활의 뜻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1 농활 성폭력이란?



농활 성폭력이란, 농활기간을 포함하여 농활을 수행하는 과정, 농활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예를 들면 농활 준비활동 등)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농활과 관련된 구성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농활과 관련된 구성원이라 함은, 농활을 수행하는 농활대원, 농민회, 마을농민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농민과 학생 사이의 성폭력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언어적인 것부터 심하게는 강제적인 신체접촉까지 발생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농민분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가지는 불평등한 남녀관계, 잘못된 성인식이 농촌 역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농촌은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하게 지배하는 곳으로 성폭력의 개념을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을 젊은 남녀가 밤에 같이 있다보니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가벼운 일로 여기는 모습들이 그런 예이지요.

2 농활 성폭력의 사례



1. 거창군 - 부산대 농활 성폭력

99년 여름 농활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 사건을 공개하고 해결하는 것은 성폭력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유형 무형의 일련한 폭력이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사건의 접수, 해결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중의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까지 한다. 이는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 곳을 지나갔느냐는 질문과 같다.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도 지난 1년간 자신에게 또 다시 가해질 폭력이 두려워 사건을 밝히지 못하였다고 했으나, 농활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사건 공개를 마음먹게 되었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생활에 임해야 할 것이다.

(1) 사건경위

99년 여름농활 수행기간 중 마지막날 '거창군 고제면 농민학생한마당' 뒤풀이에서 용초마을 신계철씨에게 우리 학교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98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다. 그날 가해자는 농민학생한마당이 끝난 뒤 뒤풀이 자리에서 같은 농활대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다. 원래 잘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따라 나갔다. 피해자는 술이 많이 취해서 몸을 뜻대로 가누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혼자서 똑바로 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가해자는 운동장 한편의 등나무와 벤치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인도했다. 벤치 주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가해자가 의자에 먼저 앉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싫다고 했으나 술 때문에 힘이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무릎 위에 앉히고 그 상태에서 여기저기를 만졌다. 피해자는 당황해서 여러 차례 무릎 위에 앉은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썼지만 쉽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1분 정도 계속되다가 피해자가 힘을 내서 가해자를 밀치고 일어나 속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피해자는 오전에 농활대가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그 폐교에서 모욕감과 수치감 때문에 가해자를 피해 다녔는데 가해자는 복도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서는 지난밤의 일은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왜 이렇게 변했느냐'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와서 피해자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변경하기 전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2) 사건 해결과정

- 여름농활 사전 답사 이후 피해자와 대리인이 직접 총여학생회로 신고함
- 농활 첫날 (6/28) 대리인이 농활 본부에 피해자가 조사를 바란다고 면주체와 여농반 주체에게 총화함
- 29일 여농반 주체와 청장년반 주체가 대리인을 만나고 피해자 진술서를 받음
- 농활 기간 6월 30일 1차 본부 회의를 통해 > 이 사건은 부산대 학우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 해결 단위는 총여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활 기간 내에 정리되길 원하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의해 농활기간 내 책임단위인 거창군 본부와 거창군 농민회에서 농활기간 내 문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대리인과 하기로 정리함
- 7월 1일 2차 본부회의 : 부산대 총여, 거창군 농민회, 여농회를 사건 해결 단위로 세움.
- 농활 이후 7월 10일 피해자가 피해자 요구사항을 총여학생회에 전달함
- 총여학생회에서는 이 사건을 7월 13일 전여대협으로 총화함 -> 이후 한총련 전원회의에 이 문제가 제기됨.
- 7월 22일 신계철씨의 사과문 도착
- 사과문에서 자신의 성폭력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려는 의지가 보여 농활마을에서는 실명공개를 하지 않고 사건경위와 해결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붙이기로 함

☆ 피해자 요구사항

1)가해자

- ① 가해자는 사건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서면을 통해 사과하고 실명공개사과를 해야한다. (마을에 대자보를 부착할 것)
- ② 이후에 자신의 잘못된 성의식을 고치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 등의 전문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아야한다.

2)농활대

- ① 신고 : 농활을 책임지는 상부단위(한총련 중앙)까지 신고가 되어야 한다.
- ② 철저한 공개 : 사건 공개는 성폭력 근절의 최소한 전제이다. 전체 농활대에서 사건이 공개되어야 한다.
- ③ 사과 : 농활안의 공동체 생활 중 폭력을 경험한 것이므로 농활대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
- ④ 농활대 안의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자치 규약 제정

☆ 사과문

먼저 용서해달라는 말과 죄송하다는 반성의 표현을 합니다. 지난날 본인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이토록 괴로워하는 줄 모르고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일상 생활에만 매여 걸어온 나 자신의 행동을 질책하여 봅니다. 지금은 불미스러웠던 일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죄책감에 괴로움도 함께 합니다. 남자라는 가면을 쓰고 술에 취하여 학생에게 가한 수치스러운 행동은 용서받을 길이 또한 없으나 학생이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럽이 이해하시고 용서로 구하여 주소서. 학생은 지성인입니다. 배움이 부족했던 죄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도록 용서로서 다스려주소서.

다시 요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못한 사람 새 삶을 살아가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 길이 반성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또 사죄를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며, 학우들에게 칭찬받는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3) 성폭력 사건의 접수 과정에 있었던 2차 성폭력

1) 2차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또 다시 성폭력을 겪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의 현행법이 성폭력이 발생했을 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을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고부터 시작하여 조사과정, 재판까지 피해 입을 당시의 모멸감을 다시 느껴야 한다. 주위에 가해자의 동조자나,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성폭력이나 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피해자에게 또 다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2차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 이번 사건의 경우

- 사건을 농활 본부에 신고한 자리에서 청장년반 주체(정용주 경제4)의 말에서 비롯된다. 대리인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사건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실명공개 사과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정씨가 "실명자보가 가해자를 매장할 수 있지 않은가?" "사건 공개의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농활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공개되면 농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말을 하였다.

3) 해결과정

- 7월 18일 2차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요구사항 전달
- : 농활 첫날 대리인과 인문대 여학생국장, 청장년반 주체(정용주 경제4)가 함께 한 자리에서 청장년반 주체의 발언을 2차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공개사과와 전문기관의 재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함. 그러나, 피해자가 전달받은 문제의 발인과 총여에서 조사한 발인에 차이가 있어 당시 같이 있었던 세 사람의 확인 자리를 가지기로 함
- 7월 31일 정씨 발언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 대한 이후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함
- 당시 자리에 있었던 인문대 여학생국장, 대리인, 정씨, 그리고 피해자와 총여학생회 부회장이 동석하여 이 자리에서 정씨의 발언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주체 단위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되는 바를 풀고자 한 점이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인문대 여국장, 대리인, 피해자가 정씨에게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예기함.

☆사과문

농활 수행기간에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을 처음 접하였고 대리인과 논의하였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문점을 대리인에게 질문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실명공개 시 가해자의 신변문제와 농활을 인식하는데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성폭력을 직접 접한 피해자의 아픔을 먼저 인식하지 않고 사건의 객관성과 우려를 먼저 인식했습니다. 저의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발언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2차 성폭력이라고 인정합니다. 사과문을 늦게 제출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하여 재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해결 과정을 거쳤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의 대부분은 밝혀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책임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의 공개를 꺼리며, 오히려 숨죽인다. 그러나 이번 성폭력 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처리 된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혼자서 공공대야 했던 날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성폭력 사건에서 벗어나 "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요"라며 이 사건을 공개한 피해자에게 대채되는 감사의 말과 함께 농활에서의 성폭력을 처리할 수 있는 규약 제정, 농활전 성교육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외 2001년 홍성군에서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3] 농활 성폭력의 특징



1.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을 얘기하기 힘든 여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더욱 고통스러운 농활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에도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활 성폭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먼저 농민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잘못된 연대의 관점과 예외법절에 대한 강조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의 경험을 밝히기 힘든 상황이 주어집니다.

농활에서 '농학연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농민에 대한 예외법절을 강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을 당하는 순간에는 피해자에게 억압적 요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내가 참고 넘기면 되는데 괜히 밝혀서 '연대'에 금이 가는 건 아닐까'라거나 '내가 화를 내거나 거부하면 예외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한 그 자리에서도, 이후에도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농활대원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농활대라는 공동체 속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더욱 고통스러운 농활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농활기간 9박 10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농활대원들은 한술밥을 먹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공동체의 결속력과 분위기를 해치지 않겠는가' 라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서지 않은 우렁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는 피해자 또한 스스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성폭력은 덮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하고 난 후에도 나머지 농활기간동안 가해자와 같이 농활을 수행해야하는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볼 때마다 성폭력의 고통을 떠올리게 되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농활대원들은 농활기간동안 죽으나 사나 같이 생활하고 작업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가해자와 같이 농활을 수행하다보면 더욱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고통은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제대로 된 연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보니 오히려 '연대'라는 것이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활 성폭력을 신고하면 '연대'를 해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농활대나 농민회에 신고했을 때 '농학연대에 금이 갈 수도 있다'며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두려는 예는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라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나 여러 사람들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입을 다물게 했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3. 학교와 마을 사이에 인식 차가 존재합니다.

전사회적으로 볼 때 대학은 비교적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내구타와 같은 가정폭력을 집안 사정으로 돌리는 곳이 농촌입니다. 하기에 농촌에서 가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마을을 책임지고 성폭력 등에 대한 교양과 이야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학생회에서 전인하고 책임져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4] 어떠한 관점을 가질 것인가?

(이는 농민 학생 공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1. 피해자 중심의 원칙

농활뿐만 아니라,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회 정치적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입니다. 강도 등의 범죄에서는 피해자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그릇된 관점들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나?'고 질책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은 그리 거창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며,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피해자 중심의 원칙은 세워집니다. 성폭력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없이'에 대한 판별은 상대방인 피해자가 그 행위를 불쾌하게 느끼고 스스로의 몸에 대한 침해행위로 경험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객관'을 들이댄다면, 일단만 믿었다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식의 물리적인 기준으로 성폭력이 판단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며, 그것은 결국 피해자의 주관과 사고를 강그리 무시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2. 연대의 관점

이 연대의 관점은 농활이 연대활동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숨겨야했던 인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연대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농민은 학생을, 학생은 농민을 연대 활동의 소중한 벗으로 인식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대활동의 대의를 생각한다면 합부로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농활 들어가는 학생들에서부터 농활 마을의 농민 한 분 한 분에까지 공유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연대'를 세우는 것은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연대'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5] 농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



1. 농활본부가 해야 할 일

(1) 반드시 농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활본부는 농활대 전체 차원으로 농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고 농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또한 농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도적으로 농활 성폭력을 해결해야할 단위입니다. 농활본부가 농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농활 성폭력은 제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농활본부에서 2차 성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활본부가 농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는 것은 농활 성폭력을 제대로 해결하고 근절해나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2) 농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농활대 전체 차원의 교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과 농활본부, 전체 농활대원들에게 농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합니다. 각 마을 농활주체에 대한 교양, 농활학교에서의 전체 대원들에 대한 교양 등 계획해보면 교양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무궁무진합니다.

(3) 농활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만듭시다.

농활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목적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활대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장과 농활대 내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한 문화의 정립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규약인 만큼 이 규약을 통하여 성폭력을 공론화하고 아름다운 연대의 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

도록 해야 하는데 이 규약 제정의 1차적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농활에서 성폭력이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反 성폭력 자치 규약>을 돕으로써 농활에 임하는 농민 학생 모두에게 성폭력 문제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규약은 농활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이 양산되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어내어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치규약의 형식은 학칙처럼 만들 수도 있고, 농활대 전체의 구체적인 약속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후자처럼 만든다고 하여도 해결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자치규약은 단지 농활본부만 딱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활대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농민회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그 외 농활 성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농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고민해보면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특히 농민회에서 농민회원들에 대한 반성폭력 교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추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전체 농활대가 반성폭력의 내용을 각 농활대의 규율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활대가 해야 할 일

(1) 사전교양에서 농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합니다.

마을 농활대 전체 교양이나 분반원 교양 등에서 반드시 교양을 진행합니다.

(2) 농활 반성폭력 규율을 만듭니다.

농활본부에서 아무리 규약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각 마을 농활대에서 농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없으면 농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우는 규율에 반드시 반성폭력의 내용으로 규율을 만듭니다.

(3) 각 마을 농민주체분들과 농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얘기를 진행합니다.

3. 농민회가 해야 할 일

(1) 농민회원에 대한 교양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2) 농민회원이 아니더라도 농활대를 받는 모든 마을의 주체들에게 농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농활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학생농활본부와 함께 제정합니다.

6 농활 성폭력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지!

1. 피해자는

- ①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나 성적인 대화 등의 언어사용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싫다고 합니다.
- ② 성폭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곳에 갔던걸,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좀 더 거부하지 못했던 것 등을 후회하지 마세요.
- ③ 농활대장이나 여성농민반 주체 등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에게 사건을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 ④ 농활대장이나 여성농민반 주체 등과 함께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2. 농활대장 / 여성농민반 주체는

- ① 농활대장이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농활대원들의 행동지침 참고)
- ② 피해자가 처음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피해자의 모든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반드시 빠짐없이 기억해둡니다. 피해자와의 얘기가 끝나고 나면 혼자 있을 때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기록해둡니다. 빠짐없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것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사건이나 심리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 다시 물어보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 ③ 성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처음 대해보는 성폭력 사건이겠지만 끝까지 아파하거나 어쩔 줄 몰라하고 있으면 피해자는 또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피해자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④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고민하고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잡아(예를 들어 농활본부로 신고해서 농활본부와 농민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 등) 피해자와 함께 얘기합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혹여나 강압적이어서는 안됩니다.
- ⑤ 농활본부로 빠르게 신고합니다. (전여대협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농활본부에 빠르게 신고해야지 농민회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활수행기간 도중이라도 지도사업은 온 본부 사업에게나 본부로 직접 신고를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을 신고받은 지 하루 안에 농활본부로 신고합니다.
- ⑥ 농활대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다시금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유합니다. 농활대원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농활대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농민에 의한 성폭력이라도 성폭력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얘기해줍니다. 이 때 구체적인 사건경위까지 얘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농활대원들이 괜히 피해자가 누군지 추측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농활대원들이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별로 도움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지 집단적인 의견을 모아가면서 성폭력 해결에 대한 관점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자체적인 역량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농활본부의 여성농민반 주체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 ⑦ 농활본부 여성농민반 주체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고통이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여성농민반 주체 등 성폭력에 대해 인식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챙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폭력에서는 피해자가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피해자와 함께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기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⑧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켜서는 안됩니다. 성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키게 되면 피해자는 다시금 성폭력을 경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가해자와 대면시킨 농활대장/여성농민반 주체에게까지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 ⑨ 가해자는 농활본부의 도움을 받아 만납니다. 가해자를 만나게 되면 성폭력 사건의 진상과 경위, 반성의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농활대가 이후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으나, 되도록 농활본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 ⑩ 농활 마을주체분과 만나서 농활 성폭력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나서 얘기하면서 군 농활본부와 군 농민회와 함께 해결할 것에 대한 얘기를 진행합니다. 마을주체분에게도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농활대 및 농활대원들은

- 농활대원들은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 ① '내가 피해자라면 어땠을까? 지금 어떨까?'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 ② 피해자가 누군지 알려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피해자는 더욱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

를 괜히 동정한다든지 하는 태도로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③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 ④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믿어주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 ⑤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라도 여러 사람이 사건이나 감정상태 등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보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더욱 나빠집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 물어볼지 몰라도 피해자는 여러 번 대답하게 되면서 성폭력을 당할 당시의 순간과 심리가 생각나 더욱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농활대장이나 여성농민반 주체를 제외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과 관련한 어떤 얘기도 먼저 꺼내서는 안됩니다.
- ⑥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 그런 데를 왜 갔니?"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⑦ 모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4. 농활본부는

농활본부 또한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합니다.

- ① 농활본부가 피해자를 굳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을 농활대에 피해자를 총화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피해자를 직접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굳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 ② 농활본부를 비상 소집해 빠르게 논의를 진행합니다.

성폭력의 해결과정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농활본부가 다 흩어져 있다면 빠르게 소집해 이후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그리고 여성농민반 주체를 중심으로 주체를 세워 그 주체를 중심으로 농활본부가 일상불란하게 움직입니다.

- ③ 농활본부는 전여대협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 / 전여농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2002년 여름농활 때는 전여대협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와 전국여성농민회연합(전여농)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가 세워집니다. 전여대협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는 영남대학교에 세워질 것입니다. 전여대협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해결해나갑니다. 그래야 올바른 관점으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④ 농민회가 성폭력 완전 해결에 대한 의지를 세울 수 있도록 사업합니다.

농민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농민회가 나서지 않으면 학생차원으로만 성폭력을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농민회가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게 토론하고, 성폭력 완전 해결에 대한 의지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농민회 차원에서 해결의 대책을 세우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농민회는 학생회나 농활대처럼 빠르게 사업되기에는 힘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민회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농활본부가 강제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 ⑤ 마을 농활대장이나 마을 여성농민반 주체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총화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 ⑥ 마을 농활대장이나 마을 여성농민반 주체와 함께 가해자를 만나보고, 해결방도를 세워 함께 해결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가해자의 성인식에 대해 총화하고 올바른 성인식과 사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농활대원 전체에게 가해자가 스스로 비판할 수 있도록 하며, 몇 가지 과제들을 주거나 성폭력 및 성인식에 대한 학습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고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농민일 경우에는 마을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농민의 상태 및 행동 등에 따라서 해결방도가 다소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해자가 반성하게 만들어야 하며, 사과자료를 부착하거나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든 농민이든 간에 전여대협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에 총화해 해결방도를 더욱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5. 농활 기간에 운영하는 전여대협 성폭력 상담소로 연락을 합니다.

여름농활 기간 내 성폭력 상담소 운영!

여름농활 기간 각 시군여 성농민회에서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군 여성농민회가 몇몇 시군에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생을 차원으로 성폭력에 대한 신고, 상담 및 해결 방법에 대해 상담하는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 :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
전화 : 053-810-3739
메일 : 8jydh@hanmail.net입니다.

7 맺으며

농활은 그야말로 농민학생이 만나 연대활동의 꽃을 피우는 장입니다. 학생들은 농민들의 현실과 삶 속에서 농민들의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과 투쟁력을 배우고 농민들 또한 학생들을 통해 사회 모순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며 함께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의의를 가진 활동에 그 의의에 반하는 활동이 섞여있어서도 안 되고 간혹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당장에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 들추어내지 말자 라는 인식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합니다.

이 이야기는 농활을 처음 가는 새내기들에게는 생소하고 당황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농활에서 성폭력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느냐구요? 농활이 여는 활동보다 성폭력의 발생 비율이 무척이나 높게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박한 농촌이라는 이미지와 농활대에 대한 신뢰로 성폭력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갖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농촌 역시 하나의 사회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농활에서 서로간의 신뢰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편안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믿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영역까지 모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일들을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은 미리 예방하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농활 가면 안 되나 봐, 아니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 하고 생각지 말고 보다 주인된 자세로 대학생활을 알차게 만들어갈 수 있는 농활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 외의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농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내가 듣고 경험한 적도 없어 그러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공히 같이 인식하고 발생한다면 잘 해결해내어 다같이 연대활동의 꽃을 피워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합니다.

IV. 도움 자료



1 "위대한 여성 땅의 어머니 여성농민" - 교양자료

전여농 사무국장 여용옥

1. 들어가며

여성농민운동을 하는 활동가는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다. 농사일에 가사일, 그리고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여성농민회 활동까지 해야만 한다. 보통 부부단위가 모두 농민운동의 주요활동가이다 보니 전국대회가 있거나, 여성농민회와 농민회 회의가 겹치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 미리 일정을 맞추어서 일정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일정조절이 딱 들어맞을 수만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누가먼저 일어나서 차려입고 나가느냐가 그날 회의에 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요사안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 여성농민 운동의 주요 활동가들만의 일은 아니다. 사실은 농사일에 아이들에 집안 대소사만으로도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사는 것이 여성농민이다.

오늘날 한국농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요한 동력은 여성농민이다. 여성농민은 농촌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농업노동력 또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생산의 동력이고, 주체이다. 농업농민문제의 파행적 왜곡으로 가속화된 이농은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참여비중을 극적으로 높여내었던 것이다.

농사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농사의 기계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기술수준이 높은 생산수단을 이용한 노동은 남성들이 주로 하고 단순한 노동력을 부여하는 노동만이 여성의 몫으로 남겨졌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노동력은 보조적인 노동력으로 간주되고 여성이 농사의 올바른 경영주체가 되고, 참된 주인이 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은 여성농민들이 농업생산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농민이 떠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과제들 중에서 노동의 주체로 서기 위한 제약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여성농민'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농민계급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과 '여성이라는 성의 주체로서의 올바른 지위의 획득'이라는 실천활동의 범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을 알고 갑시다.

아마도 학생들 중에는 전농을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여농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전여농이라는 여성농민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듯 싶다.

전여농이라 부르는 여성농민조직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라는 여성농민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1989년 12월 18일 출범을 해 13년째 활동을 하고있다.

전여농은 각도에 00도 여성농민회연합이 있다. 그 밑으로 60여개의 군여성농민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군여성 농민회 안에는 면지회와 마을분회가 있다.

전여농과 지역여성농민회연합의 주요활동은 여성농민이 민족농업사수와 농업에서 주인주체로 서고, 농촌지역사회에서의 여성농민의 역할을 높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과 함께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 활동을 벌인다.

전여농 중앙에서는 정책입안 및 대정부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회, 심포지엄, 전국여성농민대회 등의 활동과 정책활동, 교육활동,

선전활동을 한다. 지역여농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전체민민운동진영과의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지역 여농에서는 위와 같은 활동을 지역에서 벌여내며, 교육사업의 내용으로는 컴퓨터교실, 여성농민건강교실, 풍물교실, 환경교실, 여름철 어린이캠프, 도시농촌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하는 교류캠프, 어린이날 행사, 여성농민한마당, 지역통일한마당 등 다양한 대중활동을 전개한다.

3. 여성농민운동의 방향과 전망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반대와 앞으로 있을 한미, 한일자유무역협정과 WTO재협상으로 대표되는 개방농정철폐투쟁

농사일이라는 것이 시간 되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다, 또한 시기를 놓치면 한해농사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을 다투는 활동이기도 한다. 게다가 농촌사회의 보수성으로 인해 집안일은 혼자서 책임질 수 밖에 없다. 밤이 다되도록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다.

그렇게 해서 한해농사 짓고 나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값이 좀 좋을라치면 가격안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입을 해서 가격은 폭락하고, 발뚧이 채 갈아엮는 일이 비일비재로 생긴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제값 받는 농사를 짓는다면 한해의 고달픔이나, 농부증은 그런대로 버틸만 할 것이다. 그러나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높아가는 것은 빚뿐이며, 농사규모와 빛의 규모는 비례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식량자급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기형적인 세계화추세를 들먹이며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과 WTO의 협상 등으로 인한 것이다.

농민들은 부채로 인해 파산하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농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김대중정권의 개방농정에 대한 정책전환을 시켜내지 못하면 농업·농민의 파탄을 막아낼 수 없으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민족농업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농가소득보장

여성농민 노동의 중심이 되는 작물은 고추, 양파, 마늘, 참깨, 콩, 감자, 옥수수 등을 비롯한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 집약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발작물로 대표된다. 이러한 작물은 식량 대체작목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하며, 가격의 높낮이가 매우 심한 작물이다. 그리고 지난해처럼 폭설로 피해를 본 것도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이다.

UR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농가소득지지를 위한 직접지불제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확대실시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인정하여 올해부터 쌀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ha당 25만원의 직접지불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과 직접지불금이 미약하기 그지없다.

전여농에서는 쌀은 물론이고 발작물에 대한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통해 우리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농업의 유지·발전은 국민의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환경보호, 국토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직접지불제도는 쌀에만 도입할 수 있는 농업지원 제도는 아니며 모든 작물에도 도입할 수 있는 농업지원제도이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작물은 수입 농산물에 의해 그 생존기반을 잃어가고 있으며,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상업적인 소수 몇 개 품목으로 작목이 집중되어 주기적인 가격폭락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발작물에 대한 농산물 가격보장은 여성농민의 노동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4. 여성농민의 현실

1) 여성농민은 누구인가?

- 지역개념의 농촌여성과는 구분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여성(대부분의 농가여성)

-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국토와 환경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
- 농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하는 직업이 농업인 여성이다.
- 농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자기를 실현한다.
- 땀흘려 일하고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들이다.

2) 여성농민의 현실과 지위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산업화되었다. 농업을 외면한 산업화는 이 땅의 농업을 쇠퇴시키고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도가 30%도 안되는 만성적인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아울러 농업은 이 땅에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비교 열위 산업으로 인식되고 그간 농민은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 이 사회의 최하위 계층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행된 농업정책은 농업의 발전보다는 산업화를 위한 보조 정책수단화하여 저농산물 가격 정책, 외국농산물 수입 개방정책등으로 많은 농민들을 농촌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농으로 인한 농업 노동력의 감소는 농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 여성들의 농사일 참여를 급속히 증대시켰고, 특히 개방농정으로 복합영농이 권장되면서 여성농민의 노동은 다양화되고 노동량도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참여는 여성농민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반적인 농민의 사회적 지위하락은 여성이라는 성적 차별과 함께 여성농민의 삶을 끝없는 고통으로 몰아갔다.

90년대 이후 농어촌 구조개선과 함께 농업에도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고 농업에 대한 산업으로서의 지위부여와 농민에 대한 산업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의 자리매김 노력이 있었으나 여성농민은 실질적인 농업경영에서도 소외된 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여성농민은 산업화, 개방화, 농어촌 구조개선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이 사회의 빈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힘든 농사일을 마다않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

1997년 전체 농가 인구 중 2,319(51.9%)명이 여성이고 농림업 취업자중 여성의 비율은 48.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여성농민들의 노동없이 농업이 유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여성농민들의 이러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은 생산자로서의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확보,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의 개선, 복지혜택등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희생단을 요구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법, 제도가 마련되고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성농민들에게까지는 아직도 실질적인 정책 접근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① 노동부담이 과중하며 더욱 증대되고 있다.

여성의 농번기 농업노동시간은 1966년에는 3시간 25분으로 농업생산에서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9년에는 9시간 46분으로 노동시간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8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하나 여성농민의 노동은 아직도 과중하며 이는 여성들이 농업을 기피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지역 여성농민의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에는 10시간, 농한기에는 5시간 31분으로 조사되었다. 경북지역 여성농민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농번기에는 5시간35분, 농한기에는4시간 52분으로 나타나 농번기 경북여성농민들의 하루노동시간은 총 15시간 35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월 경북여성농민회연합 '경북지역 여성농민 실태조사와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곡물농업의 가격이 불투명해지고 하우스 농사나 시설원예 등의 채소나 특용작물의 재배가 증가하면서 농업생산에서 여성농민의 노동력은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과중한 노동은 여성농민들이 요통, 어깨결림, 신경통 등의 만성질환을 호소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이 주로 일하는 발농사의 경우 기계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각종 농기계는 여성에게 부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 여성들의 농기계 접근이 어렵고 여성농민들에게 더욱 과중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② 소득수준의 저하와 겸업의 증가

IMF 이후 한해동안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은 12%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30%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의 저하와 농가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지출의 증대는 농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뿐더러 영농을 지속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많은 농가가 농가 소득의 보전을 위하여 겸업에 나서고 있으며 때로는 2중 겸업 농가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 경우 여성농민은 농사일과 가사노동, 겸업으로 인한 3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③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노동은 농산물이 되고 농산물의 대부분은 교환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이 되고 농가생활에 필요한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인정된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노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실제가치 보다 낮게 평가 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의 구별이 불분명한 여성농민 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거나 부활 노동이 되고 있다. 이는 여성농민이 가정내에서, 사회에서 정당한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이다.

④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이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농민들은 농업생산 활동과 함께 일반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가사업무, 자녀의 출산양육이라는 재생산 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경우 농업생산공간과 가사노동 공간,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고 그 내용을 구별하기 어렵다. 즉 여성농민은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건은 여성농민의 노동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농민의 생산노동 참여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지면서 농촌가정의 가사노동은 더 이상 가정내의 주부의 역할에만 기대하기엔 한계에 이른 지 오래이다. 여성농민의 노동시간과도 가사노동 수행시간의 절대부족은 농촌가족 생활의 질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에 까지 이르고 있다.

⑤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 과중한 노동을 감내하며 농업생산에 종사하면서도 생산자로서 보다는 농가주부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비임금종사상의 지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생산 보조자로서 인정되어 가족농 경영에서도 농사일정과 품목결정, 농산물 판매, 농기계나 농자재 구입, 농지의 구입과 매각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로 남편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남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지원, 농기업 설립이나 영농조합법인 설립등의 농업규모화와 전문화등 각종 정책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사회보험이나 연금혜택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 농·축·임업등 각종 협동조합과 직능별 생산자단체에도 여성농민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 복수조합체제의 시행으로 여성조합원들의 조합참여의 길은 열렸으나 복수조합원체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여성의 참여율(17%)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조합의 대의원총회나 이사회등 의사 결정구조에의 여성 참여율은 아직도 지극히 낮은 수치이다.

- 농가의 재산 형성에 대한 여성농민의 기여도는 매우 낮게 평가되어 여성농민 명의의 재산은 별로 없고 재산권 행사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농가경제의 위기는 많은 농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고 대출 중단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여성농민 명의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위기 이후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⑥ 건강의 악화과 복지혜택의 미비

많은 여성농민들은 과다한 노동과 산후조리의 부족등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경북여성농민회연합의 조사(1998. 경북여성농민회연합, '경북지역 여성농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여성농민의49.3%가 일년동안 만성질환을 앓은 경험에 있다고 며 60세 이상은 76.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여성농민들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라고 판단되어도 시간이 없거나 의료기관이 부재,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치료기관을 찾지 못해 더욱 건강을 해치고 있다.

임신 출산시의 모성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여성농민이 산후조리가 부족해 산후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농촌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조건은 여성농민의 생산지원을 위한 육아, 복지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며 많은 여성농민이 노후대책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하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5. 여성농민문제의 본질

여성농민은 역대 정권의 희생농경과 최근의 WTO하 농업 구조 조정에 이르기까지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을 과중한 농업 노동

참여로 떠받쳐 온 농업 생산의 절반의 동력이며, 농업 유지 발전에 있어서 절반의 주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생산자적 지위나 금리, 복지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과 지위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 농민 문제의 본질을 보다 더 깊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1) 여성농민 문제의 본질

- ① 외세와 자본은 WTO하 농업 구조조정 정책으로 저임금 구조 유지의 기반이 되는 저농산물 가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여 한다.
- ② 일관된 농업 회생 정책으로 재촌탈농, 이농이 증가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가 경제의 약화는 결국 여성농민까지 과중한 농업 노동으로 끌어들이고, 여성농민들의 과중한 노동에 있어 우리나라의 어려운 농가 경제가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 ③ 즉 자본은 여성농민이 농업 절반의 생산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농에 맞는 생산 조건과 수단, 인력 개발비용, 모성 보호 비용, 복지 비용, 사회 참여 확대등 생산 주체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여성노동을 보조 노동 수준으로 격하시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 ④ 또한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여성농민을 여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무보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 가족을 위한 사랑 봉사, 여성의 본분이라는 가부장적 봉건적식 유지를 통해 재생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써 이득을 쟁긴다.
- ⑤ 생산 판매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은 가부장적 성차별 의식을 이용하여 자본과 여성농민과의 관계를 호도하고 조직화를 어렵게 만들고 부부간의 갈등을 만들므로써 전농민의 불만을 희석화시킨다.

즉, 여성농민의 무보수 가사 노동과 무소유 무권리의 과중한 농업 노동이 있음으로 해서 WTO하의 저농산물 가격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자본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저임금 정책의 토대로 이용한다.

여성농민문제란 이처럼 농업 모순과 여성문제가 결합되어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농민의 일반 문제 해결이 여성농민 문제의 해결이나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기에 여성농민의 독자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6. 성차별과 여성 농민 문제

1) 종속적인 생산자의 지위

많은 농촌 가구에서 남편은 소농이긴 하지만 농가의 경영주이며 농지 소유자이고 법적으로 호주이며, 사회적으로는 가부장의 특권을 누린다.

따라서 부부 둘이서 농사를 짓다가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농지가 부인에게 귀속되기 보다는 장남에게 상속된다. 장남이 농사를 계속 지을 의향이 없고 여건도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호주 상속과 더불어 농지까지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법적 뒷받침 속에서 관습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 공동의 노동을 중심으로 한 농가의 농업 경영에서도 남편은 소유자이며 경영자이고, 부인은 단지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종속적 노동자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농협의 1가구 1조합원 규칙으로 여성 농민은 제도적인 농민 이익단체가입이 봉쇄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2) 농업 노동 과정의 성차별

오늘날 여성농민이 농업생산노동에서 당연한 가장 중요한 현상적인 문제는 '과중한 노동'이다.

여성들은 주로 밭 작물과 과수 농업에서 손으로 하는 일로서 노동 강도가 약해 보이면서 지속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일들이다. 즉 여성들은 밭, 논농사, 가축 기르기와 과수 농사 등에서 중요한 일꾼으로 일하고 있으나 기계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많은 기술이나 지식, 완력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을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 반면 남성들은 콤팩트 트렉터 바인더 등의 기계로 힘든 일을 대신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농기계나 도구 등은 남성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크고 거칠어서 여성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게 여성농민들의 견해이다.

또한 영농 교육 등은 경영자로 여겨지는 남성 위주로 되면서, 여성농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조차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3) 가사 역할 수행의 문제

- ① 여성농민에게 전적으로 부담 되는 가사노동
- ②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 전무후무한 모성보호와 육아의 문제

7. 여성농민의 투쟁

1970년대 말부터 여성농민들은 마을에서부터 농산물 공동판매 등의 협동활동을 하였고, 부녀회의 민주화, 농민의 권익 실현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1980년대 초 정부가 외국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수입해와서 고추값이 폭락하고, 소값이 폭락했을 때도 여성농민들은 가장 앞에 서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라고,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꾸라고 싸웠습니다.

'여자들이 나서면 되는데 없다'는 비난을 삼키며, 내 논밭의 곡식이 때를 놓쳐 쓰러져가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보아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뛰어다녔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동안 어렵게만 여겼던 농업문제와 여성농민 문제를 공부하고, 여성농민 스스로가 강사가 되어서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제주도에까지 9개도에 여성농민회연합을 만들고, 1989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농업·농민문제의 해결과 이 땅 농민의 절반인 여성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마을에서부터 먼 군, 도, 전국에 이르기까지 여성농민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 쌀수입저지 등 외국산농산물 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도, 전국여성농민대회
- 쌀 전량수매와 학교급식 완전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농민대회
- 여성농민 복지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농민대회와 각종 정책토론회
- 농가부채 해결과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대실시 전국여성농민대회와 토론회
- 농번기 택이소와 어린이집 운영, 도시와 농촌어린이 교류사업
- 농협조합원 가입운동과 완전복수조합원제 등 농협법 개정
- 여성농민 전문인력화와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활동
- 여성농민 후계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 농림부 내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와 여성농민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 농가도우미제도의 실시 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출발한지 10년이 넘는 동안 여성농민회는 여성농민들의 희망찾기를 위해 다양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농민의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에서 여성농민들의 희망찾기를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8. 내 삶의 주인이고자 하는 욕심으로(여성농민회 활동을 하면서) : 한 여성농민의 글 마음

나는 너무나도 일찍 정권의 부당함과 여성농민들의 소외를 알았다. 암울한 시대에 나부터라도 작은 시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섰다. 소파등, 고추값 폭락, 불량종자피해보상 싸움에 군사정권이 없어져야 한다고 외쳤고 신랑 오토바이 뒤에 실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교육하였다.

무슨 여자가 과격하냐고 바위로 계란치기라고 다들 나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굴하지 않았다.

아무리 소리쳐도 되돌아오는 대답이 없을 때는 실망도 하고 행여나 뜻이 맞는 동지라도 만나면 너무나도 기뻐다. 몇 명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작은 일을 하나씩 하면서 주춧돌을 쌓았다. 그럴려면 왜 여자들만 따로 조직하냐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모아놓았던 사람과 조직이 부서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꺾이지 않았다.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면과 군이 모이고 전국이 모여 여성농민의 자주적 진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내 곁에 있고 내 스스로 내 삶에서 주인이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2 부산대학교 농활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자치규약은 부산대학교 농민학생연대활동(이하 '농활') 대원이 가입되어 있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활대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장과 농활대 내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한 문화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본 자치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활 성폭력(이하 '농활 성폭력' 혹은 '성폭력')이라 함은 농활 기간 내에 농활 대원이 가입되어 있는 모든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와, 성범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든 행위로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일
 - (2) 상대의 신체에 강제적이고,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 (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특전을 빌미로 간음, 강제추행, 또는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 (4) 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 (5)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6)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 등을 보내거나 보여주는 것
 - (7) 기타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
2.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 (의무)

농활대원과 농민회원 및 농활대가 연대활동을 펼치는 모든 주민들은 농활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구성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성폭력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 4조 (적용범위) 본 자치규약은 부산대학교 농활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과 해당 농민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 그리고 각 농활대가 연대활동을 펼치는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 중 일방이 위의 적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 ② 본 조항의 적용 시 기준시기는 사건 발생 시이며 이후 쌍방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 5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6조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피해자나 대리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 및 거부할 권리
 2.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기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 ② 성폭력 범죄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등 기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을 특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와 대리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③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부당한 피해 역시 성폭력 범죄에 의한 피해로 간주한다.

제 2장 농민학생 공동대책위원회

제 7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농민학생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8조 (구성)

- ① 위원회는 군 여성농민반 주체, 농활대 대장과 여성농민회, 농민회 간부 중에서 각 1인씩으로 구성한다. 농활대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활본부 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은 농활대 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소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는 대책위의 의결을 통해 간부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9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농활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일
- ② 농활 성폭력 범죄의 신고 접수
- ③ 농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성폭력 상담기관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안내하는 일
- ④ 농활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 ⑤ 가해자의 징계 요구 또는 발의
- ⑥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 ⑦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 및 보존
- ⑧ 농활 성폭력 사건 실태 조사 및 연구
- ⑨ 기타 농활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10조 (회의)

-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정기회의는 1/2분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여성농민회, 농민회, 군 여성농민반 주체, 농활본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④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석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의의 전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 11조 (해결의 원칙)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제 12조 (신고 등)

- ① 피해자나 피해자가 선정한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②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여성농민회, 농민회, 농활본부, 군 여성농민반 주체에게 신고한다.
- ③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자유롭게 정당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제 13조 (심의·의결)

-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사건을 보고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가해자 외에도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나 신고인 또는 증인 등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직접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4장 징계

제 14조 (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농활대원의 징계) 농활대원으로서 농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농활 수행 중지, 농활대 접근금지, 교내 실명공개사과문 부착,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자원봉사 명령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
 2. (농민회원의 징계) 농민회원으로서 농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농민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며, 농활대 접근금지, 마을 내 실명공개사과문 부착,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자원봉사 명령, 피해자의 심리적·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피해비용 지급 명령')을 지급하도록 명령, 농민회원 자격 박탈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
 3. (농민의 징계) 농민회에 소속되지 않은 농민으로서 농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농활대 접근금지, 마을 내 실명공개사과문 부착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자원봉사 명령, 피해비용 지급 명령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5. 가해자가 위원회가 내린 조치를 5일 내에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4항에 따라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6.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을 이 명백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7. 가해자의 소속단위가 그 성폭력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해당단위의 사과대자보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 결과의 공고) 위원회는 사건이 처리된 후 일주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징계 요구안을, 학교는 징계 결과를 일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사건 공개의 원칙) 위원회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일주일 이상 모든 농활대원과 농민회원에 공개하며, 학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시효) 성폭력 사건에는 시효를 따로 두지 않는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1주일 간의 공고 후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유권해석) 자치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기구에서 판단한다.
- ③ (의무) 부산대 농활본부와 지역 농민회는 매년 농활대원과 농민회원 및 농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자치규약의 취지와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

3] 농활 성폭력 지수 테스트

1. 성폭력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의 문제이다. 농활대와는 관련이 없다. → X
 성폭력은 집단내 성폭력을 조장하는 분위기 혹은 집단내 성폭력을 묵인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농활대 전체는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공동체 성원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성폭력은 사소한 일이며, 공동체 생활에 활력소가 된다. 크게 문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하고 대원들간의 팀워크를 가토박는다. → X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는커녕 대원들간의 적대감을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인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농활을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덮어두는 것이 오히려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 해악이 될 뿐입니다.

3. 성희롱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피해자이면서도 동아리를 옮기거나 과에 나오지 않거나 농활을 다시는 가지 않게 되는 등 계속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 O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자이면서도 계속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장애, 두통, 위장병, 스트레스 등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피해자 후유증)

4. '농활 성폭력'은 농활 기간 내에 농활 대원이 개입되어 있는 모든 성폭력 행위를 말한다. 농활규율을 정함에 있어 복장 등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제하는 것이나 단체, 모임에서 여성에게 주로 가사작업이나 잡일을 하게 하는 것은 '농활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 X
 농활 성폭력은 농활 기간 내에 농활 대원이 개입되어 있는 모든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와, 성범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든 행위로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릅니다.

또한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불평등한 성문화에서 오는 것이므로,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넓은 범위의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농활규율을 정함에 있어 복장 등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강제하는 것
- (2) 단체, 모임에서 유독 여성에게만 가사작업이나 잡일을 하게 하는 것
- (3) 작업에 있어 여성이 해야할 일, 남성이 해야할 일을 미리 구분짓는 것
- (4) 기타 일반적으로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판단되는 행위나 발언 업무

5. 성적 굴욕감, 수치심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가해자의 의도가 비록 친밀한 표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 O
 성희롱 행위의 판단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6. 성희롱은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여러 사람에게 행해졌을 때 문제가 된다. 단 한번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 X
 단 한번의 행위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다수에게 한 행위라면 법원은 보다 쉽게 성희롱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7. Y선배는 나이 어린 여자후배 X씨에게 특별한 성적 언급은 하지 않지만 끈질기며, 설겅이 등 잡다한 심부름을 시킨다. X씨는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과(동아리) 선배에 대한 예의의 문제이므로 성폭력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 X
 커피, 설겅이 등 잡다한 심부름을 여자후배라는 이유로 끈질기게 시키는 것은 성역할에 기반한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적인 행동이므로 더욱 조심해야할 것입니다.

② 여자 후배에게 커피, 설겅이 등 잡다한 심부름을 끈질기게 시키는 일은 성 역할에 기반한 것으로 성폭력 행위로 볼 수 있다. → O

8. 마을잔치에서 마을 농민 김씨가 농활대원 L씨(여)에게 블루스를 함께 추자고 했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기 싫어 결국 김씨와 블루스를 추게 되었다. 김씨가 술에 취해 허리를 꺾이고 몸을 밀착해 와 L씨는 기분이 불쾌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춤을 강요한 것은 잘못이다. 게다가 L씨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성폭력이다. → O
 싫다고 하는 데도 춤을 강요한 것도 잘못이고 춤을 춘다는 핑계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② 김씨는 마을잔치 분위기에 따라 춤을 추자고 했을 뿐이며,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에 대해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X

싫다고 하는 데도 춤을 강요한 것도 잘못이고, 춤을 춘다는 핑계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했다는 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독 행위로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9. 농활대원 중 J씨(남)와 M씨(여)는 분반활동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M씨는 적극적으로 활발한 토론으로 그 모임에서 단연 눈길을 끌었다. 분반활동이 끝난 후 J씨는 M씨의 분반활동에서 행동을 지적하며 '왜 다소곳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느냐. 당신의 여자답지 못한 행동 때문에 우리 농활수행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M씨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정당하다. → X
 여성에게 다소곳하고 압전하게 굴기를 바란다는 것은 성 역할에 기반한 언급으로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② 성 역할에 기반한 언행으로 부적절한 언급이다. → O

10. 다음의 설명 중 성폭력 피해자로서 적절한 대처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직장 남자 동기가 어젯밤 선배들과 단란주점에 간 이야기를 했다. 기분이 나빴지만 과 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 → X
- ② 선배가 이메일 보내는 법과 받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포르노 사진을 첨부파일로 보내왔다.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배우는 입장이고 분위기를 생각해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 → X
 성폭력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여성들의 반응없는 행동을 '소극적 동의' 혹은 '허락'으로 해석하여 성희롱 행위를 더욱 집요하게 합니다. 흔히 남성들은 여성의 no는 yes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더욱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농활에서나 어디에서나 성폭력이 일어나면 꼭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신고는 꼭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공론화로 예방과 근절의 차원도 됩니다.
- ③ 평소 음담패설 잘 하기로 소문난 남자선배에 대해 여자 동기들이 의견을 모아 그런 말을 중단해주도록 선배에게 정식 요청했다. → O

11. 김씨는 농활대 안에서 분위기 메이커로서 자신에 역할에 대단히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즐겨 들곤 한다. 최근의 그의 이야기 중에 몇 가지가 성행위에 관한 것이 있었다. 여학생들은 그런 행위를 싫어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웃으면서 지냈다. 다음 설명 중 위 상황에 대해 맞는 설명은?

- ① 여학생들이 함께 웃고 들었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라 할 수 없다. → X
 김씨의 의도가 농활에서의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 한 행위일지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학생들이 웃었던 웃지 않았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여학생들이 웃었던 웃지 않았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씨의 행위는 부적절했다. → O

12. 성폭력 예방을 위해 농활대장을 비롯한 농활주체들(분반주체, 실무주체 포함)이 주의해야 할 역할과 자세를 적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내용은?

- ① 농활대원들이 성적 농담(음담패설)을 삼가도록 강조한다. → O
- ② 농활대장이 아닌 이상 별 책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 X
 농활에서의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농활대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농활대 내에서 대원들은 성폭력근절의 의지를 확고히 세워, 성폭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농활대 안에서 성폭력에 대해 별로 인식이 없다면 농활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 ③ 자신의 말이 공격적이고 위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O
- ④ 반성폭력 자치 규약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 O

체/점/기준

10-12개 : 지킴이형
 당신은 지킴이형에 속합니다. 앞으로도 '성폭력 없는 농활 문화 정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6개 : 방임형
 당신은 방임형에 속합니다. 농활에서의 성폭력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8개 이하: 가해자형
 당신은 가해자형에 속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농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4 다함께 부를 수 있는 재미있는 노래

♫ 땅파고 사는 인생 사는데 뭘지
 사는데 무엇인지 팔자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추수가 끝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았어 농사짓는 팔자를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투쟁 않고 힘없이 살아가면 더욱 후회하는 거라고
 투쟁을 하면서도 후회 않고 한평생을 사는 사람아
 땅파고 사는 인생 힘들어도 투쟁하며 살아가리라

♫ 여성농민 만만세- 손이 쫄쫄
 여성농민들 우리 다함께 농민살길 찾아보세
 우리가 먼저 깃발들고서 농민해방 만드세
 어디서 농민말살 시작했는지 미국놈인지 누구인지 너무너무 알미워
 여성농민들 일어납시다. 농민해방 위하여
 우리가 먼저 수입농산물 막아내야 합니다.

♫ 찬찬찬
 몸배옷 걸쳐입고 굳센 팔뚝에 황토벌판을 일구는 나는야 여성농민
 농사일 집안일로 내몸은 만신창이 되어버려도
 희망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수입개방 자행했던 영/삼/이
 돌아올 농촌을 만든다더니 더욱더 떠나가게 만들었네
 슬슬히 들판을 보니
 주루룩 주루룩 주루룩 주루룩 밤새워 흘리는 눈물

♫ 눈독길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발목을 지나 바람부는 눈독길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
 애타는 마을에 방문을 열면 쌓여 있는 집안 일거리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밀려드는 많은 일거리

밀려드는 수입농산물 빛갈 줄은 신/농/정
머물지 못해 떠나가지만 나는 지/킬/래~
오늘은 통일 축전 내일은 투쟁 농사일 힘이 들지만
이 땅의 주인 내일의 희망 우리는 진짜 농사꾼

♪. 농사는 아무나 짓나

(원곡 -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의 개사곡으로 나주 여성농민들이 직접 지은 곡입니다. 농할 때 활용합니다.)

1. 농사는 아무나 짓나 수지라도 맞아야 돼지
수확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남는건 골병뿐이야
어느 세월이 이 빛 다 갚고 자식교육 제대로 하나
농사는 아무나 짓나 농민은 아무나 하나

2. 농산물 수입개방에 땀흘려서 농사 지어도
풍값된 농산물 빛되어 남아도 우리는 지켜나간다.
민족농업에 자주민주통일 칠천만 책임질 농민
농사는 아무나 짓나 농민은 아무나 하나

♪. 여성농민 단결가 (원곡 - 마음약해서)

1.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젠 매날 호미질이야 (아이고 허리아파)
열쇠도 없는 딸팔이 차에 이름 신고 밭으로가네 (아이고 허리아파)
생각하면 그얼마나 힘들었던가 애들키우고 빨래하고 땅도파야지
농사짓는 여자는 기계잡니까 농촌에 사는 여성농민도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 여성농민 대단결 !!

2. 콩을 심을까 마늘 심을까 방황하는 이 마음
선진국처럼 보장 농산물 정해주지 않는 이나라
생각하면 그 얼마나 억울했던가 유알협상 이유부처 농산물 개방
남편들이랑 힘을 합쳐서 쌀값보장 전량수매
수입쌀을 막아봅시다. 여성농민 대단결!!

5 여성농민 글마당

어느 봄 날에

김영미

국거리 찾아 소쿠리 들고 나물 찾아 나선 날
밭 언저리 쪼그려 앉은 등위로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다.

푸릇푸릇한 잡초들 헤치며 냉이를 찾던 손끝이 움찔.
어느새 냉이꽃대가 오희 솟도록 봄이 한창이었던만
겨울을 떨쳐내지 못한 이 가슴은 혼자 오들오들 떨고 지냈었구나.

꿀꺽거리는 선 기침 튀긴 발독의
여기저기 윈 통 꽃망울 머금은 냉이가 지천이라 더욱 망연해진다.

모처럼 봄 햇살에 이끌려 온 몸을 맡긴 채
머리는 불투명한 농업 전망에, 발길은 발독 눈독 헤 메다가
쑥 무더기 앞에 가 앉는다.
향긋한 내음 하나 하나 뜯어 소쿠리에 담으며
소녀 적 아련한 향수에 취해 배시시 웃음도 나오고.

연한 된장 풀고 햇 쑥국 끓여 밥 한 사발 꺾꺾 말아먹으면
언 마음에도 개나리 피고 진달래 필지..

어느 산기슭 황토 피다가 못자리 흙도 준비해야겠고
쑥쑥 보이지 않아 내박쳐 두었던 배추밭도 치워야 하는 데

그래 농꾼아, 다시 희망을 걸고 시작하는 거다!

정읍여성농민회 준비위원회 6년,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며

김옥임

강산도 변한다는 10여년 전 얘기입니다.

농촌에서 힘들게 살아도 희망을 찾으며 살겠다고 시집과 땅 1평 없어도 마냥 좋았던 때는 20대였어요. 농사를 시작하니 큰일을 해낸 것처럼 뿌듯했고, 검질 메는 일도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어찌 그리 신이 나던지...참 분신도 없었어요.
3사람이 모였어요. 일할 때 방치된 농촌 아이들 문제가 심각해 한 달간 탁아소를 열었더니 그 엄마들이 우리 회원이 되었지요.
이 활동을 하면서 회원을 얻는구나 하고 처음 배웠지요. 그런데 읍사무소가 탁아소 지원금을 다른데 썼다는데도 “예”하고 나올 정도로 읍사무소가 무섭고, 농협의 문턱이 어찌 그리 높던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네요.

30대가 되었지요. 우린 회원이 10명이 넘자 한없이 무너지는 자존심을 세우기로 했지요. 남자들에게, 가정에서도, 단체에서도, 사회에서도 무시당하는 것이 억울해서 자립하고 나와 당당한 여성농민회를 만들었지요. 남자가 없으면 안될 것 같은 사업도 아기가기하게 꾸려나가고, 여성농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담아 여성농민교실도 운영했지요. 농번기 아가문제도 해결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잘 했어요. 그리고 도여성농민회연합도 건설했지요. 남들이 하찮게 보거나 말거나...

그런데 예견했던 개방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요. 그리고 배웠지요. 여성농민이 농업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2배로 힘들어져야한다는 것을.

이 때부터 우리에게겐 습관 하나가 생겼어요. 어느 회원이건 힘들어하면 말도 하기 전에 눈물 먼저 글썽이며 손잡아주는 습관이었

40대가 되었지요. 늙는 것을 환탄하기는 커녕 이전 40대 회원도 많아졌다고 서로 좋아했어요. 군여성농민회도 건설했어요. 또한 이번 농협 내 여성농민 권리 찾기 활동을 하면서 확실히 배웠지요. 회원 서로간의 무한한 애정으로 모여라, 그리고 의논하라, 그러면 길이 보이고 힘이 생긴다는 것ですよ. 이 자리에서 다시 10년 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지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언제나 위해주며 달려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겠지요.

여성민중의 등대지기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